

문화 만개

겨울호

vol. 04 | 2016. 12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예술인문특강



시인이 들려주는 따뜻한 영화이야기
영화의 심장소리
김은경 시인, 심리상담사
12.8(화) 14:30~16:30
수강료 5천원



"우지마라, 인생이란 그런거다"
**「금강경」에서
얻는 삶의 지혜**
최재목 동양철학자
12.13(화) 14:30~16:30
수강료 5천원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집시음악의 매력
조희창 음악해설가
12.20(화) 14:30~16:30
수강료 5천원



여행의 인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여행작가과정
권다현 여행작가
12.8~2.23 2,4주(목)
10:00~12:00
수강료 3만원 (6회) 여행실습비 별도



**김영동의
유럽미술관기행 VIII
〈이탈리아미술관〉**
김영동 미술해설가
12.9~2.24 2,4주(금)
10:00~12:00
수강료 3만원 (6회)



**역사산책
〈동서양고전읽기II〉**
박순교 해설작가
12.2~2.17 1,3주(금)
14:00~16:00
수강료 3만원 (6회)



성탄특집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2016. **12.23** (금) ~ **24** (토) / **12.25** (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12. 23(금) ~ 24(토) 10:10, 11:20 / 12. 25(일) 11:00, 14:00, 16:00

산타들이 펼치는 크리스마스 캐롤음악회

2016. **12.25** (일) 공연 30분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로비
■ 공연단체 : 브라보 브라스 앙상블
■ 관람료 : 무료



문화를 쓰다 6.

- | [인문학] 우지마라, 인생은 다 그런거다_최재목
- | [미술] 할아버지의 초상화인가, 손자의 것인가_이성낙

특집 Miguel de Cervantes 14.

- | [문학] 돈키호테를 찾아서_김공연
- | [뮤지컬] Man of la mancha_안재범
- | [무용] 발레 돈키호테_강정선

목차

Contents

발행인 |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이병배
 기획/편집 | 김은주, 윤혜원, 이주현, 꺾은정
 발행일 | 2016년 12월 12일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대표전화 | 053)684-9711~2
 홈페이지 | www.dsc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2016년 VOL.4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World & Culture 30.

- | 시베리아의 몽골리언을 찾아_박정곤

Art & Artists 38.

- | [전시] 특별기획전시 間
 I. 석용진 초대전 / II. 류재학 초대전
- | [공연] 모질브라스 앙상블
 베르디 베스트 컬렉션
 올 댓 재즈

Inside Culture 48.

- | [유럽미술기행] 이탈리아 미술관 여행_김영동
- | [음악] 가슴으로 듣는 영화음악_권순현
- | [에세이] 그 겨울, 눈개를 만나다_권다현
- |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열매를 맺으며 68.

- | 단신



“우지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글 최재목

기쁨을 잃은 시대에

시국 선언이 불붙고 있는 요즘, 새삼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 영국인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가 한국에 머물며 느낀 이른바 '한국의 맨 얼굴'을 그린 책이다.

그렇다. 우리는 잘 살게 되었지만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파리하게 지쳐가는 웃음기 사라진 얼굴은, 고인이 된 최인호가 『산중일기』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가 써 내려간 하나의 풍경이다'라고 하였듯, 우리 자신의 풍경이다.

그런데 알겠게도, 나의 얼굴은 남이 보아야 잘 보인다. 외신의 보도내용이 국내 사정을 더 잘 짚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오히려 더 안 보인다. 멀리서-다른 사람의 눈으로-먼눈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부터 더 멀어질 필요가 있다. 최인호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고 했다.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마음에서조차 멀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뤄온 한국의 현대사는 어떤가. "조각은 멀리서는 선의 흐름이나 덩어리들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던 어느 화백의 말이 와 닿는다. 우리 기적의 선(線)이나 덩어리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물음들이, 지친 내 영혼의 그림자가, 창백한 얼굴이, 수시로 창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댄다.

그래, 경제적 물질적 기적이 그대로 기쁨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기적은 그저 물질의 풍요였고, 육신의 비만이었고, 기형이었다. 그 뒤편으로 우리들의 야원 그림자가, 핏기 없는 얼굴들이 쓸쓸히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적'이란 말도 서서히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빈 호주머니에 주먹 꽃고, 허탕치고 귀가하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가. 막막한 청춘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 청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노년들도 짹짹하다.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희망을 찾아 어디론가 망명할 수도 없다. 차라리 꿈이 없었다면 아픔도 없었을 터인데. 희망이란 것이 이토록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삶은 '마지막 어휘'를 찾는 것

따지고 보면 삶은 한 밑천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갈망하는 만큼 손에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 미꾸라지처럼 빠져 달아나거나,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리는 모래 같다. 찾을수록 더 아득해지기만 하다.

“서귀포 앞바다에 비가 내린다./꺼안아도/또 꺼안아도/아득한 아내의 허리”라는 시인 고은의 시처럼,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무언가의 허리를 칭칭 감고서 놓지 않으려 한다. 명품 가방이든 신발이든, 뭐든 쓸어안으려 하나 그게 만만치 않다. 모두 '아득한 허리'이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은 까닭”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시구절처럼, 제발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으면 좋으련만. 자신 속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수많은 경전이 결국 “우는 아이 달래는 종이돈”이거나 “밑 닳는 휴지”란다. 누가 아파하며, 울고 있는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찢찢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은유가 가르침들이다. 모두 방편일 뿐이다.

삶은 결국 '마지막 어휘(final vocabulary)'를 찾는 것. 끝내 허탕치지 않고, 한 건 건지는 것. 그러나 그 마지막 어휘 앞에 서면 누구나 아득하고 아찔해진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는 없고, 늘 저쪽으로 달아나 버린다.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길 위에서 또 얼마나 물어왔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 헌데, 그렇게 묻던 말들이, 생각들이, 결국 부질없는 것이라니. 그 물음의 자리에는 캄캄하고도 막막한 들판이 가로막는다. 순간 우리는 '정신적 경련(mental cramp)'을 일으키고 만다. 이럴려고... 고작 이걸 보려고... 이 짓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다시 묻는다.

그러나 그런 안면 경련 아니면 몸살로 나자빠질 때, 다시 애써 일어서면서 우리는 크게 배우기도 한다. 바닥을 치고 일어서면서, 한 수씩 또 건지는 것이다. 희망이란 퇴로 없는 현실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또 다시, 묻는 연습 아닌가.

나는 누구에게 '그리운 얼굴'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단지 주름이나 뺨살만이 아니다. 옷장에 넣어둔 옷처럼, 내 얼굴을 마냥 어딘가 깊숙이 쳐 박아 두고 조용히 홀로 살고픈 때가 있다. 이름 없는 들판의 꽃처럼,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렇게나 흔들리고 싶을 때가 있다. 이곳저곳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 많은 '꾸며진' 얼굴을 다 지우고, 그냥 방 안에서 홀로 맨 얼굴로 지내고 싶을 때가 있다. 남에게 얼굴을 보이는 일도 피곤한 것이다. 대학시절이었다. 화장하지 않은 여자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몰라봐서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다. 웬 주근깨가 그렇게 많고, 못생겼던지. 그 맨 얼굴은 평소 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한 사람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릴케가 『말테의 수기』에 쓴 한 구절이 떠올랐다.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얼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누구나가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은 가끔 다른 누군가와 겹치거나 얹히기도 한다.

요즘은 가끔 고향의 논두렁 밭두렁을 흐느적흐느적 걸어가시던, 노년 한 때 내 아버지의 야윈, 쓸쓸한 뒷모습을, 나는 지금 자신에게서 보게 된다. 울컥 눈물이 난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하다니. 거울에 스친 내 뒷모습에서, 얼핏 나는 나의 슬픔을, 처량함을, 쓸쓸함을 보여주고 말았다. 아, 그것은 내 기억 속의 아버지였다. 야윈 뒷모습이 어디론가 하염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거울이 아니었다면, 저쪽 편에 내 얼굴이 비치지 않았더라면, 감히 알 수 없었을 회상 속에서 나의 노년을 만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얼굴만 얼굴이 아니다. 온몸이 다 나의 얼굴이다. 체면(體面)이란 말처럼 '나의 몸(體)'이 곧 '얼굴(面)'인 것이다.

몽테뉴의 『에세』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한 대목이 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가 겨울에 셔츠 바람으로 다니는 거지가 귀까지 수달피 가죽으로 싸고 다니는 자 만큼이나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참아내느냐?”고 물어보았다. “한테 나리, 어떠시오?”하고, 그는 대답했다. “나리도 얼굴은 벗었지요. 나는 전체가 얼굴이요.” 허허, 온몸이 얼굴이라니! 하긴 맞다.

나는 누구에게 ‘그리운 얼굴’인가를 물어본다. 나는 아니라지만, 내가 남에게는 아픈이고 절망일 때가 있다. 남은 아니라지만 그대가 나에게 아픈이고 절망일 때가 있다. 내 얼굴이 남에게 아픈이나 폭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처럼, 남의 얼굴이 나에게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보들레르의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 가운데 「새벽 1시에」를 읽다가 무릎을 탁 쳤다.

“마침내! 혼자가 되었군! ...몇 시간 동안 휴식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고요를 갖게 되리라. 마침내! 인면(人面)의 폭력은 사라지고,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 뿐이리라.” ‘인면의 폭력’이라니. 사람들과 살다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할 때, 그 섬뜩함을, 나는 안다.

보들레르의 말은 이어진다.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둠의 늪 속에서 휴식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자물쇠를 이중으로 잠그자.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두면, 나의 고독은 더욱 깊어지고, 지금 나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는 바리케이드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다. 가끔 타자의 얼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개인들도 있다. 수많은 얼굴 앞에서 그들은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릇 속에 그릇이, 또 여러 그릇 속 문혀들어 간 겹겹이 상자. 인형 속에 인형이 5겹 6겹으로 숨어든 목제 러시아 인형 마트로슈카처럼, 자신의 얼굴을 퐁퐁 숨기고플 때가 있다.

집단적, 획일적인 힘, 패거리의 시선과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들다. 자물쇠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보이지 않는 몇 겹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일. 그래서 자신의 고독 속으로 얼굴을 묻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길은, 홀로임의 평온과 자유 속으로 얼굴을 지우고 숨어드는 일이다. ‘독락(獨樂)’ - 홀로 있는 즐거움을 찾는 일이다.

사람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부인가.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슬픔인가.

‘근심 보따리’ 선물을 꺼안고

“사람은 근심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태어난다(人之生也, 與憂俱生)”고 했다. 『장자』의 말이다. 삶은 기쁨만이 아니다. 근심, 걱정, 불안, 우려, 염려(Sorge)를 내복처럼 껴입고 살아간다. 추위를 견디려면 옷을 껴입어야 하듯, 삶을 지키려면 아픔이란 감각을 잘 다듬어두어야 한다. 아픔이 삶의 살갓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픔이 있기에 오히려 삶은 더 따스하게 안전하게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삶이 건강하다는 것은 아픔을 자연스레 느끼고 거부 없이 잘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몸을 깊이, 자세히 알아간다. 여기서 스스로를 가눌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터득한다. 내가 내 육신의 사건들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스스로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해가는 일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일인가?

『금강경』에서는 말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줬지. 그런데 미안! 사실은 단 한 사람도 구제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의 생로병사를 각자 온전히 떠맡아 감당해 가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종교도 철학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돕는 것일 뿐이다.

결국 모두가 다 혼자다. 그 수많은 친구들도, 이웃들도 언젠가 다 떠난다. 모두들 스스로의 삶으로 바쁘다. 이럴 때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위로로 다가온다.

.....

안개 속을 혼자 거닐면 참으로 이상하다.
살아 있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모두가 다 혼자다.

우지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자신의 허탈, 허탕, 허망을 가만히 꺼안아 주고 톡톡따닥 추켜 세워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생한다. 수고 많다. 그래~그래~괜찮다”며, 자신과 맨 얼굴로 마주 앉아, 자주 안부라도 물어주었으면 한다.



최재욱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 일본 초쿠비대학원 석사 및 박사
- 하버드대, 도쿄대, 베이징대, 라이덴대 등에서 연구
- 한국양명학회 회장 역임
- 현재 한국일본사상학회 회장
- 저서/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노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외 다수
- 200여 편의 논문

할아버지의 초상화인가, 손자의 것인가

논쟁에서 진수를 보자

2000년대 초 필자는 조선 회화사(繪畫史)에서 이름을 떨치던 故 오주석(吳柱錫, 1956~2005) 씨의 전화를 받았다. 오주석 씨는 당시 조선 시대 그림에 대해 전국을 돌며 강의하는 미술평론가였기에 필자는 그의 전화를 받고 매우 반가웠다. 거기다 오주석 씨가 통화 중 필자가 <월간 미술>(1984)에 연재하던 “조선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을 거론해 친근함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때 오주석 씨가 필자에게 전화를 건 주된 이유는 조선 시대 초상화 두 점에 나타난 인물이 동일인인지,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것인지 감별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오주석 씨가 언급한 초상화의 주인공 이재(李穡, 1680~1746)와 그의 손자 이채(李采, 1745~1820)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 덕분에 새로운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필자에게 행운이기도 했다.



이재는 조선 후기 문신이였다. 자는 희경(熙卿)이며, 호는 도암(陶菴), 한천(寒泉)을 썼다. 본관은 황해도 우봉(牛峯)이다. 문신으로 대재학(大提學)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 여러 편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시호(諡號, 사후 추증하는 호)로 문정(文正)을 하사받았으니 그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¹.

이재의 손자 이채 역시 조선 후기의 문신이였다. 자는 계량(季良)이며, 호는 화천(華泉)이다. 호조참판(戶曹參判, 지금의 재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문필가로도 이름을 남겼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².

할아버지에 이어 손자도 시호를 받은 명가인 셈이다. 그런데 두 개의 초상을 놓고 각각 이재와 이채의 것인지, 아니면 둘 모두 이재의 것인지를 놓고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며칠 후, 오주석 씨가 보낸 초상화 자료를 검토한 필자는 그와 다시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두 초상화의 주인공은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주석 씨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흥분된 모습을 수화기 너머로도 느낄 정도였다. “첫째, 두 초상화 모두 왼쪽 귀 앞에 검정콩반죽 크기의 납작한 ‘검은 점(色素母斑)’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점’ 또는 ‘혹’은 유전(遺傳)되지 않는 피부병변입니다. 둘째, 왼쪽 ‘눈꼬리’ 4시 방향에 살갓 색보다 약간 희고 도톰하게 보이는 것은 일종의 지방종인데, 이것 역시 유전 가능성이 희박한 피부병변입

니다”³. 수화기 너머에서 “아!” 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필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림에 나타난 주름살로 보아 초상화는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자 오주석 씨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옳았어!”하며 환호했다. 기뻐하며 소리치던 그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그건 한 연구자의 집념이 일궈낸 성취감에 다름 아니었다. [참고: 《오주석의 한국의美》(술, 2003)]

당시 필자는 오주석 씨가 보내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 했을뿐더러 전화로 자세한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 요 근래 앞서 언급한 두 초상화를 꼼꼼히 살펴본 필자는 ‘눈꼬리’ 부분에 자리 잡은 도톰한 지방종이 ‘표재성피부지방성모반(表在性皮膚脂肪性母斑, Nevus lipomatous cutaneus superficialis)’이란 비교적 희귀한 피부병변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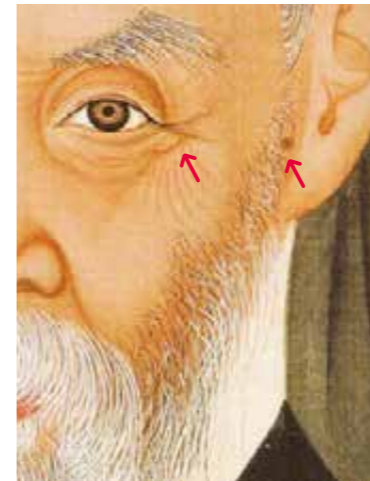
나중에 알았지만 두 초상화는 국내 미술사학계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조선 후기 문신 이재의 초상으로 전해온다 하여 ‘전 이재 초상(傳 李穡 肖像)’¹으로 불리던 초상화는 그 손자인 이채의 것²과 다른 초상화로 알려졌다.

1979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시대 초상화를 가지고 국내 최초로 개최한 특별전의 도록 《韓國肖像畫》에서도 35쪽의 ‘이재상 필자미상(李穡像 筆者未詳)’ 초상화와 같은 책 53쪽의 ‘이채상 필자미상(李采像 筆者未詳)’

¹ 傳 李穡(1680~1746) 肖像



2 李采(1745~1820) 肖像



3 양 초상화의 왼쪽 귀 앞에 검은 점 눈 밑에 피부지방증

초상화라는 식으로 각기 다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요컨대 각각 할아버지 이재의 초상과 손자 이채의 초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을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 으뜸가는 걸작이라고 주장하던 미술사학자 오주석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두 초상화가 한 인물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채의 초상에는 찬문(贊文)이 상세히 적혀 있어 그것이 이채의 초상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반면 근거 없이 전해온다 하여 '전 이재 초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초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찬문이 없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위에서 언급한 두 초상화가 각기 다른 피사체인지, 또는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주관적 관찰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논쟁하던 중 날카로운 눈매를 가

진 오주석 씨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병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두 초상화가 이재의 손자 이채의 것이며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 그린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진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바로 조선시대 초상화가 매우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려졌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근거 바탕(Evidence Based)이라는 정신 아래 제작된 것이다. 이는 세계 미술사에서 그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초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핵심적 특징이다.

조선 초상화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것과 더불어故 오주석 씨가 보여준 한국 미술에 대한 큰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이성낙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혜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Special Theme

| 특집 Cervantes

14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톨레도

Miguel de Cervantes

“정직함은 가장 좋은 정책이다”

Impossible Dream

*“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To fight the unbeatable foe
 To bear with unbearable sorrow
 And to run where the brave dare not go
*

*And I'll always dream
 The impossible dream
 Yes, and I'll reach
 The unreachable star ”*

- 뮤지컬 'Man of la Mancha' 중

15

불가능한 꿈을 꾸고,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시도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다다를 수 없는 밤하늘의 별에 닿고 싶어 했던 돈키호테...
 용기 있는 진정한 기사가 되길 꿈꾸며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사색하는 인간형 햄릿과 비교되는
 돈키호테는 행동하는 인간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시종 산초와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역새처럼
 흔들거리는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번 겨울호 특집에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가 만들어낸
 유쾌한 몽상가 '돈키호테'(Don Quijote de la Mancha)를 문화만개 속으로 데려왔다.
 산초와 함께 달려갔을 그의 길을 따라가는 '돈키호테를 찾아서'를 비롯해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된
 세르반테스의 또 다른 예술세계를 만나보고자 한다.

이야기꾼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영동하지만 정의로운 캐릭터 '돈키호테'를 통해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냈다.
 시대를 따라 번잡한 사상과 부조리한 사회의 모순들은 사라지기는커녕
 지금까지 곳곳에서 모양을 바꿔가며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돈키호테,
 소설 속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하며 고난과 방랑의 삶을 살았던 세르반테스,
 비록 자신이 살던 시대에는 이해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르반테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을 이어오며
 잡을 수 없는 별을 쫓아가며 마법처럼 재탄생되고 있다.

책으로는 들려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눈물 머금은 음성의 호세 카레라스와 매력적인 배우 조성우가 무대에서 부른
 'Impossible Dream'은 해학적인 가사와 멋진 멜로디로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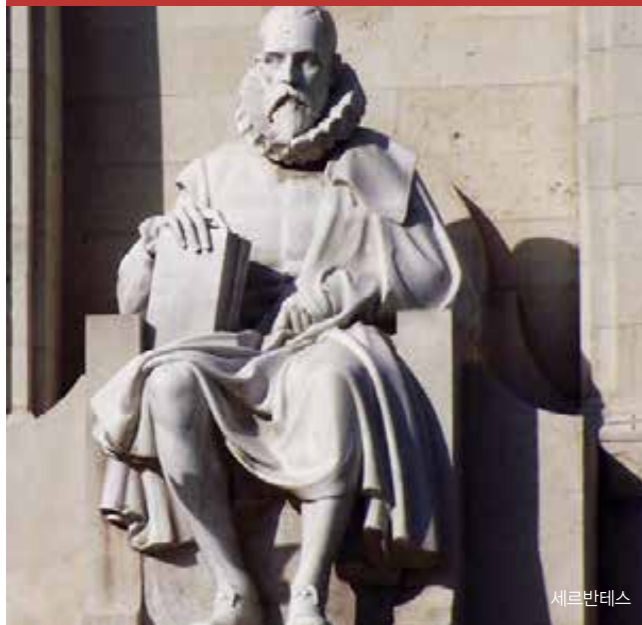
정의와 사랑을 위해 좌절과 슬픔까지도 익살스런 행동으로 이겨낸
 유쾌한 몽상가 '돈키호테'를 응원하며...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 세르반테스 -

편집자 김은주

돈키호테를 찾아서

글 김금연(자유기고가)
사진 김금연, 김형욱



세르반테스

Finding Don Quixote



돈키호테와 산초

한국으로부터 약 일만 킬로미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의 이베리아 반도에 한 나라가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국가, 전 세계 5억 5천만 명의 인구에게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만들어버린 국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한국인의 정서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국가, 스페인이다.

스페인 은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다. 역사적인 계통을 따라 크게 나누어도 서쪽의 갈리시아, 중앙의 카스티야, 남쪽의 안달루시아, 동쪽의 카탈루냐, 남동쪽의 아라곤 등이 제각각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스페인 내의 각 지방의 도시들은 독특한 건물, 음식, 축제 등으로 여행자에게는 행복을 전해 주는 곳이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했던 영향으로 인해 스페인 곳곳에서는 유럽 속에 스며든 이슬람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반면 이슬람 지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북부에는 서유럽의 풍취가 가득하며,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 등 자연과 더불어 이어가는 관광 자원이 넘쳐난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오늘날 스페인을 세계 수위를 다투는 관광대국으로 만든 저력이라 볼 수 있다.

'카스티야 라 만차'

스페인의 강력한 예술적 역량 역시 각 도시를 다채롭게 수놓는 요소다. 벨라스케스, 고야, 엘 그레코, 피카소, 달리, 가우디, 우나무노, 로페 데 베가 등 듣기만 해도 익숙한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그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도시에는 어김없이 위대한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다. 2002년 노벨 연구소 선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를 차지한 '돈키호테'는 근대 소설의 효시이자 스페인의 국민 문학으로 손꼽힌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돈키호테'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세상이 끝이 나고, 누군가 인간에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얻은 확실한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인간은 조용히 손을 들어 돈키호테를 가리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삶에서 얻은 결론이오, 그것으로 나를 단죄할텐가?'"

'돈키호테'의 원제는 '재치있는 이달고, 라 만차의 돈키호테'이다. 라 만차는 스페인 중심부 카스티야 지방에 속한 곳으로, 현재 행정 구역상으로도 '카스티야 라 만차'로 분류되어 있다. 마드리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 라 만차 지방에 알칼라 데 에나레스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도시 중 하나이자 작가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야베드라의 고향이기도 하다. 현재는 마드리드 지방의 일부로, 도시 대다수가 '알칼라 데 에나레스 대학과 역사지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름은 '에나레스 강 유역의 성'이라는 뜻이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도시인지만 도시 곳곳에 다채로운 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이 도시에는 1499년 설립된 알칼라 대학의 건물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의 스킨라학자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이곳에 있는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집으로 알려진 '카사 데 세르반테스'는 안타깝게도 실제 세르반테스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다. 실제로는 16~17세기의 집을 리모델링 한 파티오(정원)가 딸린 2층집으로, 집 바로 앞에 있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청동상이 더 유명하다. 이곳은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늘 북적여 사진을 담으려면 15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알함브라궁의 사자상



로마교 건너편에 있는 고색창연한 건물



엘 그레코, 세르반테스 등 예술가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어 넣어준 톨레도



갑옷입은 돈키호테



마드리드의 중심가 솔 광장

'마드리드 - 톨레도'

차를 타고 1시간가량 걸리는 마드리드 시가지로 돌아오면 그곳에도 세르반테스의 발자취가 있다. 마드리드 구시가지로 들어서는 사대문의 하나인 '알칼라 문'을 지나 스페인 9개 국도의 시작점인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에 들어서는 초입에는 스페인 정부가 설립한 스페인어 홍보 및 스페인·라틴아메리카의 문화보급기관, '세르반테스 교실'의 본부가 당당히 위치해 있다. 전 세계 70여 개국, 해마다 10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이 기관은 자신들의 언어를 '세르반테스의 언어'로 가리키는데 거리낌이 없다. 솔 광장을 지나 옆의 경사진 대로, '그란 비야'를 거쳐 내려가면 '스페인 광장'이 나온다. 이곳에서도 역시 말을 탄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동상이 주위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거나 친구들을 기다리는 스페인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다.

마드리드의 남쪽 70km, 차로는 1시간을 달려가면 스페인의 고도, '톨레도'가 나온다. '카스티야 라 만차' 자치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도시는, 8세기부터 고트족의 수도였으며, 무어인들의 이베리아 반도 정복 이후로도 줄곧 수도로서 기능했다. 11세기 말 기독교 왕국인 카스티야 왕국의 손에 넘어가면서, 스페인이 제국으로 발돋움할 때까지도 스페인의 도읍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톨레도에는 로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유적이 한데 모여 있는 역사적인 지역으로,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터미널에 도착해 언덕길을 올라 '비사그라' 문을 통해 구시가지로 향하다 보면, 언덕을 통해 보이는 황금색 시가지의 모습이 눈을 황홀하게 한다. 주위에는 톨레도의 특산물인 철제 갑옷과 검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돈키호테가 갑옷과 검을 들고 모험을 떠난 이야기가 저절로 떠올려진다. 제각기 다른 양식의 화려한 성당과 제국의 흥망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유적을 거닐다보면 중세도시 한 가운데 떨어진 기분이 든다. 그 와중에 톨레도 성 인근에서 있는 세르반테스 동상 앞에서 다시 한 번 위대한 작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코르도바 – 콘수에그라 – 세비아’

톨레도를 나와 스페인의 드넓은 평원을 만끽하며 남쪽으로 내려가면 코르도바 주의 주도, ‘코르도바’가 나타난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 히스파니아 식민지의 주도로, 한때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했으며, 이슬람 왕국의 손에 들어간 후 크게 번영하여 10세기에는 당시 인구가 60만에 달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이자 세계 최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이후 ‘국토회복전쟁(Reconquista)’을 거쳐 가톨릭 왕국의 주도로 자리잡게 된다. 이 도시 관광은 ‘메스키타’부터 시작된다. 이곳의 대성당은 ‘메스키타’로, 국토회복전쟁(Reconquista) 후 코르도바를 회복한 가톨릭 교도들은 모스크 한가운대를 개수하여 성당을 세워 현재는 모스크와 카테드랄이 공존하는 기독교 성당으로 개조, 발전시켰다. 대성당은 외부, 내부 모두 이슬람 사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건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코르도바 주변부에도 크고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곳이 ‘콘수에그라’다. 이곳은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돌격한 장면의 배경이 된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줄지어 서 있는 풍차 옆,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콘수에그라와 라 만차의 평원을 보면 달리는 말을 타고 갑옷 입은 기사 모습의 눈앞에 그려진다.

코르도바 주변을 휘감고 도는 ‘과달키비르’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 번 스페인 역사의 도시가 등장한다. 스페인 제 4의 도시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잠든 도시, 세비아 주의 주도, ‘세비아’다.

이곳과 세르반테스의 관계 역시 각별하다. ‘레판토 해전’에 참전한 후 팔이 불구가 되고, 귀환 중에는 해적에게 잡혀 5년간 포로생활을 한 과정을 거쳐 그라나다에서 세금징수원으로 일하던 그는 모험으로 세비아에서 7개월간 투옥된다. 그야말로 기구한 삶이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한다. 세기의 걸작이 세비아의 지하 감옥에서 태어난 것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꼽히는 세비아의 ‘스페인 광장’을 노닐다 보면,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기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당시 스페인의 부조리를 그대로 투영하는 이야기를 구상했을 세르반테스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인생은 정말 알갭게도 알 수 없다.’



세비아의 스페인 광장



돈키호테가 돌진하던 콘수에그라 풍차



그라나다 알바이신 지역

‘그라나다’

코르도바에서 동쪽으로 세 시간 가량을 차를 타고 이동하면 그라나다주의 주도인 ‘그라나다’가 등장한다. 전설하였듯 이곳 역시 세르반테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이곳은 1492년 가톨릭 공동 왕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6세에 의해 함락되어 국토회복전쟁의 끝을 알린 곳이다. 유럽의 도시라기보다는 이슬람 중세도시처럼 보이는 그라나다에는 중세 이슬람 궁전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이자 무어인 예술의 극치로 꼽히는 ‘알람브라 궁전’이 위치하고 있다.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스페인의 42개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나 유명한 곳.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길 때가 없다. 웅장하면서도 예술가의 집념이 느껴지는 궁전과 정원 속에서, 몰락해가는 이슬람 군주의 고뇌와 그를 보필하던 할렘의 여인들의 모습은 장절하기까지 하다. 비록 스페인의 수많은 볼거리를 이 자리에 모두 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처럼 세르반테스라는 한 인물의 발자취를 간략하게나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스페인의 강력한 문화적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온 몸으로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당시 스페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 내려간 세르반테스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한때나마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스페인의 영광을 반추해보며, 그가 남긴 명작 돈키호테를 통해 여전히 살아있는 세르반테스의 해학과 지혜가 새삼 부러웠다. 매일 매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돈키호테를 생각하니 바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더욱 그리다.

김궁연

- 프리랜서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강사



▲ 맨오브라만차, 1965 초연(New York)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모순의 공존이 만든 삶의 희망

글 · 자료 안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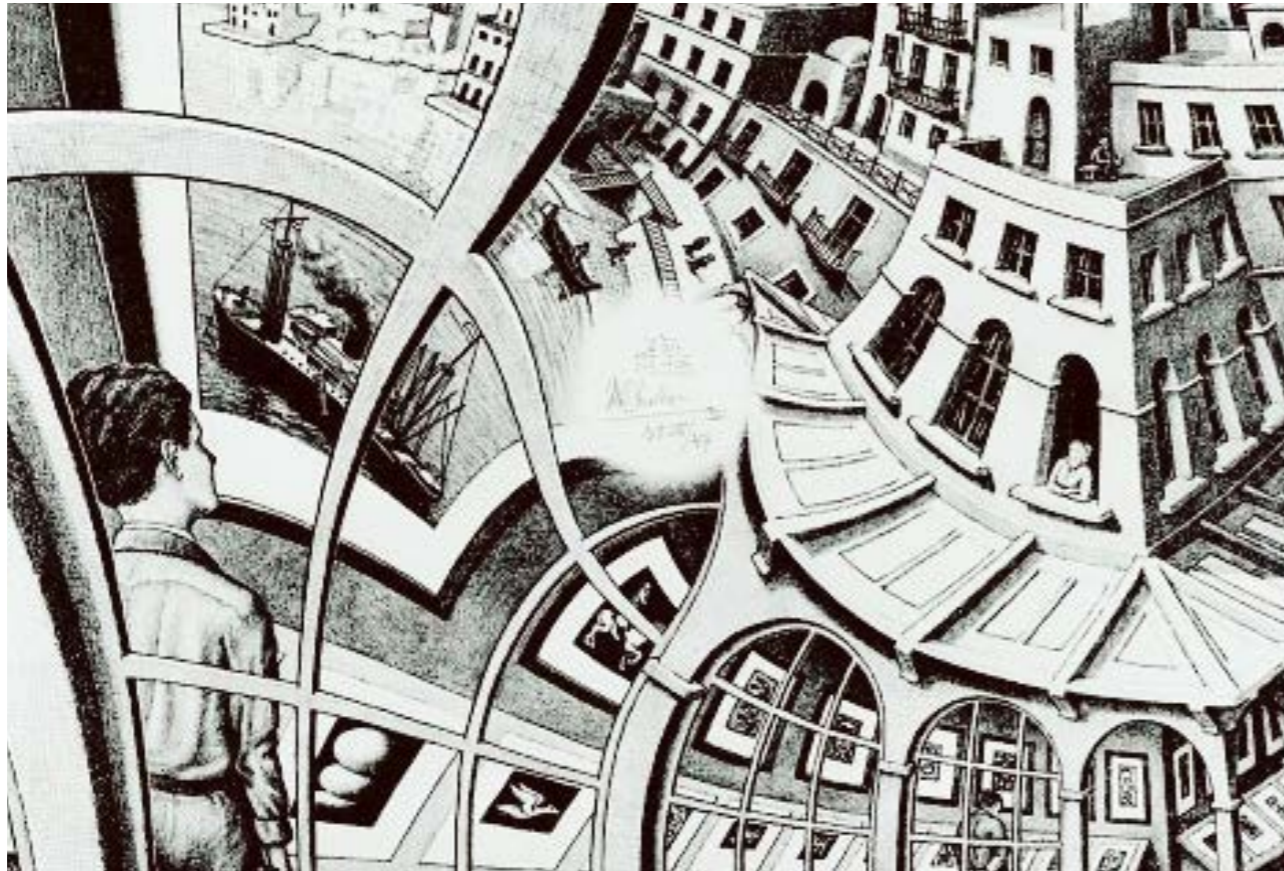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1965년 뉴욕에서 초연된 이래 반세기 동안 세계 곳곳에서 상연되며 명작의 반열에 오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이 공연이 처음 막을 올렸을 때 평론가들은 상업 극장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여기에는 여타의 뮤지컬과 달리 특별한 무대 전향이나 화려한 의상도 없고, 진지한 주제와 실험적 구성 등 연극적 요소가 강해 뮤지컬 넘버도 몇 곡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맨 오브 라만차』는 대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고, 토니상 5개 부문 석권과 2,328 연속 공연의 대기록을 세운다. 무엇이 관객들을 이토록 열광시킨 것일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비롯한 몇 차례의 인식 혁명을 거쳐 도달한 현대의 세계는 서로 얽히고설킨 그래서 종종 상호모순을 이루는 너무도 많은 체계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것이다”와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명제지만 실제로 공존하는 경우들이 연이어 증명되곤 했다. 이후 이울베반은 양자역학이나 비유클리드 기하학, 언어적 전회 등과 같은 현대의 세계를 열어젖힌 다양한 이론들의 개념과 근거로 활용되었고, 현대의 세계를 예측불가의 시공으로 재수립했다. 그런데 여기서 돌연 이울베반의 논의라니?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거둔 놀라운 성공 요인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 글의 논지와는 무관하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에 기초한 과학의 한 이론과 이상을 그린 예술의 한 작품이 만나는 지점에서 필자는 그 성공의 한 요인을 유추하고, 본 지면을 빌어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르반테스의 고전 ‘돈키호테’가 원작인 이 뮤지컬의 제목은 돈키호테가 아니라 『맨 오브 라만차』다. 연극이나 오페라, 발레에서는 모두 주인공이 돈키호테지만 뮤지컬에서는 주인공이 돈키호테가 아니라 작가인 세르반테스이기 때문이다. 세금 징수원이었던 그는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성격으로 교회에 세금을 부가했다가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지하 동굴감옥에서 종교재판을 기다리던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을 변론해야 할 상황에 처해진다. 결국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쓴 소설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극중극의 형태로 돈키호

테를 공연하게 되고,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현실의 세르반테스의 수감 생활과 허구의 돈키호테의 모험 이야기가 교차하는 액자 구조를 갖게 된다. 극중극에서 돈키호테의 이상을 향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비웃음을 산다. 그러나 극이 점차 진행되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알돈자의 세계를 돌시네아의 세계로 바꾸어 놓았을 뿐더러 극중극의 양식을 빌려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세르반테스 자신마저도 변화를 갖게 한다. 극의 도입부에서 감옥에 갇힌 세르반테스는 앞으로 다칠 종교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알론조 키하나가 돈키호테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알돈자가 내 이름은 ‘돌시네아’라고 말하는 극중극의 결말에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적개심을 품었던 죄수들은 세르반테스를 응원하게 되고, 그는 종교재판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간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이와 같은 액자식의 극 구조를 교묘히 활용해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상과 현실을 하나로 연결하여 무대 위에 세운다.

극중극에서 돈키호테의 모험은 사랑과 자유, 용기가 외쳐지는 이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반면 돈키호테의 아버지, 세르반테스가 갇힌 감옥은 부정이 만연한 현실의 세계를 상징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이란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인 것이며, 따라서 이상과 현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차원, 다른 레벨에 각기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뮤지컬의 결말에서 돈키호테의 세계가 세르반테스의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제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양립 불가한 이율배반을 공존하게 한다. 네덜란드의 화가 에셔(M. C. Escher, 1898~1972)는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2차원의 평면 위에 3차원 공간을 표현하여, 모호한 시각적 환영 속에 사실과 상징, 시각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다뤘다. 그가 그린 「화랑」(Print Gallery)을 보면 이에 관한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다. 에셔의 이 그림에서 소년은 화랑에서 전시된 그림을 보고 있다. 그림에는 항구가 있고 건물이 있다. 건물 2층의 창가에는 소년의 어머니라는 설이 있는 아주머니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의 1층은 바로 소년이 있는 화랑이다. 이 그림에서 소년은 보는 주체일까, 보이는 대상일까. 소년이 관람객으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소년 자신이 그림의 일부로서 전시되어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레벨

의 두 세계가 교묘하게 한 시공에 양립하는 것이다. 에셔의 그림처럼 『맨 오브 라만차』의 결말에서도 극의 전경인 돈키호테의 세계와 극의 후경인 세르반테스의 세계가 교묘하게 합일한다. 만날 수 없는 두 세계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현실과 극의 경계가 점차 무너진다. 극의 인위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공연은 '진짜' 관객의 현실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연의 말미에서 관객들은 꿈에 대해서 이룰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을 잡자"고 떠벌이는 미치광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극 양식을 통해서 관객

들에게 실제적인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객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란 질문을 돈키호테에게 실제적으로 듣게 된다. 돈키호테의 세계가 지하 감옥의 세르반테스의 세계로 확장되고, 한 번 더 나아가 공연을 보는 현실 세계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제 관객의 감각은 공연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극의 사건을 함께하는 공유를 통해서 예민한 각성을 촉발한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러 관객의 의식은 어떤 설명도 없이 절벽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느낌에 맞닿아 카타르시스 이상의 감정, 승고를 경험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맨 오브 라만차』에는 특별한 무대 전환이나 화려한 의상,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도 몇 곡 안 되지만 관객들은 이 공

연에서 모순의 공존이 만든 삶의 희망을 보며 그 이상의 감정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서구의 역사는 신성이 현실에 도래한 예수의 강림이란 모순의 양립을 통해 성립했다. 서구에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한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열광한 관객들은 곤란한 현실에서 찬란한 이상을 외치는 돈키호테의 모습에서 희극적으로 극화된 예수의 일면을 보았다는 생각은 필자의 지나친 망상인 것일까?



안재범

-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교수
- 한국연기예술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장
- 극단 미로 대표, MAP연기론 연구소장
- 저서 : 《나와 세계로서의 배우》 외 다수
- 연출 : 《대머리 여가수》, 《혹성의 사랑》 외 다수
- 연기 : 《라이프》, 《웃어라 햄릿》, 《우리 읍내》 외 다수



Man of La Mancha 中(출처 : STAGE AND CINEMA)

발레 돈키호테 (Don Quixote de la Mancha)

글 강정선(대구무용협회 회장) | 사진 국립발레단(Korean National Ballet) 제공



‘돈키호테’는 1605년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풍자 소설로 정식표제는《재기(才氣) 발랄한 향사(鄕士) 돈키호테 데 라만차 티 Ingenioso Hidalgo Don Quixote de la Mancha》이다. 인류가 아끼는 유산으로 2002년 노르웨이 노벨 연구소에서 문학사상 최고의 작품 100편에 속하며,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꼽히는 소설이다.

스페인 출신의 세르반테스가 만든 세계적인 인물인 ‘돈키호테’는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 문학으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정작 돈키호테 작품이 작가에게 경제적 도움은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대망상의 총동적 몽상가이며 꿈과 이상을 위해 행동을 아끼지 않는 불굴의 인간형으로 대표되는 허구의 존재 돈키호테가 세계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조각, 설치물, 음악, 영화 속 캐릭터, 엽서, 인형 등 여러 모양으로 또 다양한 예술분야를 총망라하기까지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작품 속 돈키호테를 기억하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스꽝스럽긴 하나 꿈과 이상을 향해 돌진하는 그의 성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기 힘든 연민의 캐릭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Don Quixote
de la Mancha*



바질과 그의 연인 키트리, 그리고 키트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부자귀족 가마쉬의 이야기가 무용수들의 다양한 발레 동작으로 표현된다. 사랑의 실패를 맞본 가마쉬는 바질과 키트리의 사랑에 질투하고 분노하며, 키트리의 아버지 로렌조가 부자인 가마쉬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하자 결국 키트리와 바질은 야반도주를 시도한다. 하지만 야반도주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키트리는 가마쉬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돈키호테와 그의 조수 산초판자가 등장해 바질과 키트리 커플의 결혼을 돕는 작전을 펼치는 희극으로 꾸며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발레다.

발레 돈키호테는 경쾌한 웃음과 화려한 테크닉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무용수의 32바퀴 연속 회전 및 남성 무용수의 고공 점프 등 고난도 기교는 발레의 백미 중 손꼽히는 장면으로, 가히 돈키호테를 대작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클래식 발레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결혼식 장면과 스페인의 정취를 맛 볼 수 있는 화려한 의상과 투우사의 춤, 플라멩고 등용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으며, 탬버린과 캐스터네츠가 함께하는 음악은 발레와 극의 흐름에 흥을 더욱 북돋워주게 된다.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의 해설은 키트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부자귀족 가마쉬가 맡아 바질과 키트리의 사랑에 대한 질투를 흥미롭게 또는 코믹하게 이야기로 풀어준다.

또한 유니버설 발레단의 대표작으로도 '돈키호테'를 꼽는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 초연한 이후 영국, 독일 등 유럽 순회공연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유니버설 발레단의 장기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명작으로 그해 무용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무용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이 무대 또한 화려한 의상과 스페인의 정열을 맛 볼 수 있는 무대로, 클래식 발레의 고전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돈키호테의 발레 중 '키트리와 바질의 2인무', 결혼 피로연의 '그랑 파드되'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명작이다. 아쉽게도 올해는 만날 수 없었는데 문학의 거장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같은 해에 서거한 까닭에 무대가 나뉘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느 발레단이 보여주든 발레 돈키호테는 지중해의 색감과 생기가 담긴 스페인의 정열을 느낄 수 있으며, 고난도의 발레 기교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무용 작품이기에 그에 합당한 찬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돈키호테, '꿈꾸지 않고, 이상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 돈키호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생을 마감한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듯하다. 그 물음을 마음에 담은 채로 발레 돈키호테를 통해 잠시 심을 누리본다.



강정선
- 대구무용협회 회장
- 대구예총 수석부회장

Don Quixote de la Mancha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는 시대,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눈앞에 놓여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꿈을 포기하게 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기에 오히려 그가 돋보이는 건 아닌가 싶다. 그 옛날 프랑스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는 어떻게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화폭에 담기 시작했는지... 그 시대에도 역시나 꿈을 찾아 가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나보다. 돈키호테의 매력에 빠진 '구스타브 도레'나 그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도 그를 화폭에 담았고 '멘델스존'의 음악에서도 그를 만날 수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화와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는 자주 스카우트되는 유명 인사다. 소피아 로렌이 돈키호테가 사랑한 상상의 연인 돌시네아로 출연한 뮤지컬 영화 '맨 오브 라 만차(Man of La Mancha)'는 지금도 잊지 못할 영화로 기억된다. 그 뿐 아니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본 본 사람이라면 스페인 전역에 걸쳐 세르반테스가 만들어낸 돈키호테가 마치 역사 속 인물처럼 곳곳에서 흔적을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시대가 아닌, 행동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인간성에 대한 대리만족을 돈키호테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이토록 예술과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돈키호테를 무용계에서도 만나 볼 수가 있다. 400년이 넘어서는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빛이 바래지지도 않고 거듭 재탄생되며,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서 회자되는 행동하는 인간형, 돈키호테! 이제 그를 발레 공연장에서 만나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발레단의 양대 산맥인 국립 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은 방대한 소설의 일부분을 무대에 옮겨 발레의 화려함과 원작의 특징을 잘 드러내어 공연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많은 무대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중 강수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가 지난 10월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려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색다른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었다. 국립발레단은 발레를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발레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데, 2010년 '코펠리아', 2011년 '돈키호테', 2012년 '백조의 호수'에 이어 올 가을 무대에 올린 '발레 돈키호테'는 관객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발레로 표현된 '돈키호테'는 방대한 돈키호테 소설 중 일부를 발췌해 각색한 작품으로 가난한 이발사 바질과 키트리의 사랑 이야기가 무대에 오르며, 스페인 광장, 선술집,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발사

시베리아의 몽골리언을 찾아 러시아 투바 공화국

글 · 사진 박정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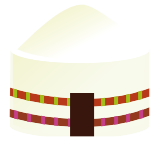
투명하게 얼어붙은 바람을 본 적이 있는가. 바람이 언다. 이곳 시베리아에서는 적어도 그렇다. 녹장을 부리다 시간에 떠밀려 어슴푸레 태양이 마지못해 얼굴을 내밀면 시베리아 동토에는 희뿌연 아지랑이가 마치 타고 남은 연기처럼 대지에서 피어오른다. 사방이 지평선임에도 대지의 아침녘은 겨우 한치 앞밖에 보이지 않을 뿐,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방향조차 정치하기 힘들다. 그럴 즈음 눈발 위 새하얗게 서리 내린 잎사귀는 고토 신라의 황금 금관에 달린 자작나무 잎사귀 장식 마냥 바람의 인도에 따라 서서히 떨림을 시작한다. 아지랑이를 한껏 머금은 바람은 마치 아낙네의 넓은 치마폭처럼 시베리아의 스텝 초원과 타이가 숲을 따라 흐르다 동장군의 기세에 눌러 다시금 얼어붙고 만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베리아의 일상은 이처럼 준엄함으로 가득하다. 이런 이유로 감히 어느 누구도 시베리아의 냉기에 대적치 못할 터이나, 그럼에도 오랫동안 이곳에 터를 두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온 이들이 있으니, 바로 남부 시베리아 초원을 광활하게 누비는 유목민 투바 민족이다.

문명과 교통수단의 발전에 힘입어 나라와 나라가 보다 가까워지며 오늘날 지구는 마치 좁디좁은 작은 구슬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굳이 탐험과 모험심으로 가득 찬 여행객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이웃한 여러 나라를 접해본 이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나 여행객들에게 시베리아는 또 다른 로망으로 다가오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라도 한번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유라시아 대륙을 멋지게 가로지르고픈 꿈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본지를 통해 필자는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베리아의 몽골리언 투바인과 그들이 살아가는 투바 공화국을 소개하고자 한다.





남 시베리아의 터쥬트대감, 유목민 투바 민족

32 시베리아. 그 이름만으로도 이가 시리고 소름을 돋게 만드는 곳. 뼈와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허리까지 폭 빠져드는 끝없는 눈발. 시베리아란 정말 상상만으로도 혹독한 겨울 전경을 눈에 어리게 만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의 낭만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니, 닥터 지바고의 로맨스가 담긴 유리야틴 마을과 지난 세기 혁명을 꿈꾸었던 데카브리스트들이 유배를 와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곳도 바로 시베리아다. 한 때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라 불릴 만큼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으며 치타 또한 아기자기한 목조 가옥과 화려한 장식의 석조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데카브리스트 거리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베리아의 전부가 아니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베리아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 멀리 극동 시베리아에서 우랄 서편의 시베리아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도 모자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시베리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도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 있으니 바로 투바 공화국이다. 정교회 신도들로 가득할 것만 같은 러시아에 왜 동양인들이 있을까 의아해 하는 독자도 있겠지만 투바인들은 정녕 오랫동안 시베리아를 지켜 온 터쥬트대감과도 같다.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투바 공화국은 러시아의 심장인 모

스크바에서도 가장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편이라 해봤자 수도에서 직항편이 하루에 고작 한 차례에 불과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더라도 크라스노야르스크와 하카시아를 거친 후 차량으로 다시 한참의 시간을 소비해야 이곳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쪽으로는 몽골과 국경을 이루고 북으로는 하카시아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를 면전에 두고 있으며, 동과 서로는 알타이, 부랴티야 공화국과 인접해 있는 투바는 행정구역상 러시아 연방 시베리아 지구에 해당하며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30만이 조금 넘을 정도로 작은 공화국이다. 그러나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기 때문에 면적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다. 심지어 수도 키질에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해 있는 편이라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수도를 제외하고서는 차를 타고 스텝을 따라 한참을 이동해야 군데군데 마을과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한때 북 몽골과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오던 투바 공화국은 20세기에 이르러 독립을 꿈꾸었으나 러시아 내전과 볼셰비키 혁명이란 소용돌이에 휘말려 명목뿐인 공화국을 유지하다 소비에트를 거쳐 현재까지 러시아 연방에 포함되어 있다. 투바 공화국의 주요 민족은 당연 투바 인들이다. 러시아어로 '투빈스'라 불리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24만여 명이 이곳 투바 공화국에 살고 있으며 인접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키르기스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도 소수의 몇몇이 살고 있다. 얼핏 보기에 투바는 몽골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도 몽골로이드에 포함되는 투바인들은 일찍이 드넓은 광야에서 말을 타고 유목을 하며 생활해 왔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남자들은 말과 친숙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기마술은 가히 신기에 가깝다. 그러나 엄연히 독립된 민족이기에 그들의 자긍심은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필자가 방문했던 10월 말은 이미 우리 관점에서는 한겨울과 다를 바 없었고 도시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11월 중순까지는 아직 가을이라고 마주치는 투바 사람마다 서슴없이 말했지만 발목 넘게 쌓인 눈과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10월 말의 투바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혹독한 겨울의 신고식을 치르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투바 인들은 유목 여정의 베이 스텝프 격인 스토얀카(Stoyanka)에 정주하며 다음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통상 이들의 임시 거주지는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이는 보다 쉽게 물자를 수송하고 가축들을 관리하고자 함이라 한다. 스토얀카에는 목조로 지어진 가축들의 우리와 조그만 오두막, 그리고 전통가옥인 유르트가 전부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축 관리에 소비하는 이들은 남녘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혹한에 아랑곳없이 노동에 집중한다. 장정들은 이른 아침부터 말을 타고 나가 소와 양떼를 몰아 초지에 풀어 놓으며, 노인은 노인대로 가축들의 보급자리를 청소하거나 바느질을 하고 여인들은 우유를 짜 치즈와 빵을 만들고 만두를 빚는다. 유목을 제외한 가정 내 풍광은 우리의 시골 모습과 흡사한데 실제로 투바 지역은 신라 문화에 영향을 미친 스키타이 문화가 우리 역사보다 훨씬 앞서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불교와 샤머니즘의 조화로운 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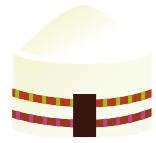
필자가 처음으로 이들과 대면한 곳은 수도 키질이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인 예니세이는 유빙으로 가득 덮인 채 키질의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유유히 북극해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 건너 절벽 위에는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누각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고딕 양식과 고대 그리스 양식이 즐비한 러시아 도시를 떠나 동양적인 색채가 물씬 풍겨나는 이곳에 와 있으니 뭔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친근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투바 공화국의 시내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불교 사원이었다. 종교적으로도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는 이들은 부랴티야, 칼미키야와 더불어 러시아에서 드물게 정교가 아닌 불교를 공식 종교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심 광장에도 경전을 담은 마니차가 세워져 있었다. 티베트 불교 특성상 경전이 들어있는 이 마니차를 돌리게 되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여 추위에 도 아랑곳 않고 많은 이들이 이곳을 들렀다. 이른 아침 예불이 시작될 즈음이면 한산하던 거리도 추위를 뚫고 사원을 찾아가는 이들로 분주해지는데 이러한 광경은 불심이 가득한 우리 불자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사원 안은 고풍함 속에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줍음이 많은 투바인들은 인사를 건네도 힐끗 쳐다보다 미소만 머금은 채 재빨리 지나갔으며, 노란 도포에 붉은 천을 두른 수도승들은 학생에서부터 노스님까지 예불을 준비하느라 경내를 분주히 오갔다. 정말이지 얼굴만 바서는 누가 투바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불상을 모셔놓은 법당도 우리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경전을



모든 스님들이 함께 낭독하는 진행방식과 예불 중간에 스님들이 차와 빵을 먹는 시간이 있어 양식상의 차이를 보였다.

티베트 불교와 함께 이들의 종교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샤머니즘이다. 현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은 전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교적인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곳 투바에서만은 아직도 종교 이상의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체계적으로도 대 사면과 고등 사면, 일반 사면 등으로 구분될 만큼 사면들은 공화국에서 등급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연례 의식과 치료 목적으로도 찾아드는 이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되었다.

샤먼센터의 뜰에 들어서자 우리의 성향당을 방불케 하는 샤먼의 나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어둑어둑 저녁 해가 막 지려는 찰나 샤먼들은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의식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북과 제 의식은 불교처럼 우리네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낮설었다. 특히 짐승의 깃털과 가죽, 각종 동물 문양의 장식에서는 토테미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샤먼의 의상을 장식한 순록과 새, 그리핀 문양에는 기원전 3-4세기에 흥했던 스키타이 문화의 흔적이 그대로 서려 있었다. 수천 년 전 스키타이 시대에는 순록과 새가 신과 인간계를 잇는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어 당대 제사장들이 지니고 있던 조형, 장식물에서 그 형상이 자주 발견된다 하는데 아직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다고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투바인의 예술혼을 담은 전통 오케스트라



36

투바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들의 예술 문화를 이해하고 접해보는 것이다. 몽골과 알타이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흐메이' 혹은 '흐미'라 불리는 창법은 이곳 투바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 전문가들이 점차 사라져가며 흐메이 창법을 전수 받은 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인 것은 하나, 이들은 스스로의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쓰고 있다.

투바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들의 예술 문화를 이해하고 접해보는 것이다. 나무 골조에 기와를 올린 이곳은 외경만으로도 충분히 호기심을 자아내는데 입구에서부터 전통 의상과 악기들이 풍성히 전시되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된다. 이곳 한 켠 어딘가에서 가야금과 유사한 음색이 들려오는 문을 두드려 보았다. 마침 전통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는 날이었다. 투바의 오케스트라는 약 서른 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녀를 포함해서 흐메이를 부르는 이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로 구분되어 있었다. 얼핏 보

기에는 우리의 해금과 유사하게 생긴 악기들도 있었고 양금과 콘트라베이스를 모방한 듯한 악기들도 눈에 띄었다. 개개의 악기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이루어 낼 때는 더없이 아름다운 음색을 발휘하였다. 전통의상 차림의 단원들은 멀리 이방에서 찾아 온 손님들 위해 몇 곡의 민요를 들려주었는데 경쾌하고 힘찬 리듬은 마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폐기에 찬 투바인의 기상을 담은 듯했으며 영롱하게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고스란히 담은 흐메이 합창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인간을 통해 재

현하였다. 진지하고도 유쾌한 오케스트라의 연습장은 필자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과 애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전통이란 그저 답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야 함을 투바인들을 통해 각인하게 된 좋은 계기였다.

투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필자는 다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모스크바로 복귀를 서둘렀다. 멀리 몽골 초원에서 불어온 바람인지 사얀 산맥을 넘어 알타이의 전설을 담아 흘러 내려온 바람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무언가 오래된 역사를 품은 듯 무거운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낯선 이를 배웅해 주었다. 지금 이 순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유라시아를 여행하는 이가 있다면, 혹은 시베리아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독자가 있다면 투박하지만 인심 좋은 투바인들과 꼭 흥겨운 조우를 가져보기 바란다.

박정근

- 고려기 문학대학교 한문문화연구원 원장
- 고려기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01 특별기획전시 「間」 I 석용진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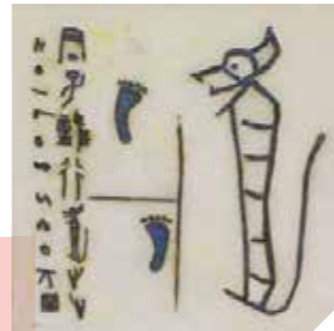
글 이정란(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기획) |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一思 석용진 작가 초대전 「間」 전시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그림과 글씨, 그림과 기호, 회화와 디자인 등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석용진 작가는 전시에서 예술과 삶, 작가와
관람객, 아트센터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의 문화 환경을 '間(사이 간)' 이라는 의미에 담아 일상의 모든
관계 지음을 미술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間」 특별전에 초대된 一思 석용진 작가는 40여 회가 넘는 개인전을 통해 문자학과 문학 등의 방대한 소양
이 요구되는 서예를 현대적 재료와 독창적인 조형양식으로 현대화된 서예 세계를 구축해오며 화단에서 입
지를 굳혀온 인물이다.



虎步(50×50cm Board 위에 새김 2016)



旅(100×100cm 장지 위에 아크릴릭 2016)



風來(114×63cm 장지 위에 혼합기법 2015)

이번 작품들은 오래된 청동기의 명문이나 비문의 탁본같이 세월이 만들어낸 듯 마모되고 묵은 맛이 나는 바
탕 위에 옛사람들의 영원에 대한 갈망과 함께 스쳐가는 하나의 영원들을 언어 이전의 순수이미지에 작가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平常心(130×45cm 장지 위에 아크릴릭 2015)

또 예술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뜨
리며 표음문자가 갖는 기호로서의
상징과 추상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유회적인 표현을 작품에 담아내
관람객들은 시각적인 감상을 넘어
온몸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는 순
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02 특별기획전시 「間」 II 류재학 초대전



글 이정란(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기획) | 사진 웃는얼굴아트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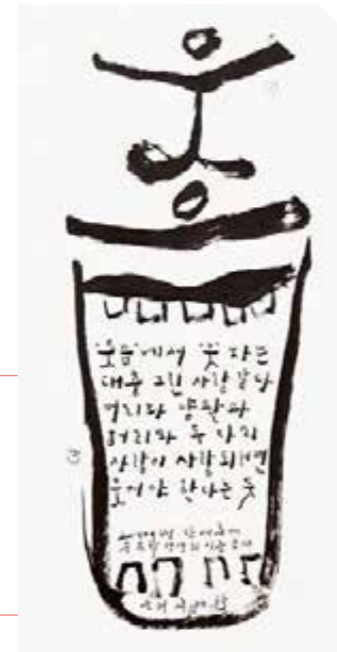
순수 문자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특별기획 「間」 - 류재학 초대전'이 지난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류재학 초대전은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인근한 인쇄·출판센터의 환경과 문화예술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두 번째 「間」 특별전이었다.



두 번째 「間」 특별전에 초대된 文岡 류재학 작가는 40년 간 서예가의 길을 걸으며 그림과 글씨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화면 안에 절묘하게 구성함으로써, 탁월한 회화성과 조형미를 표출해왔다. 또한 전통 서화예술에 현대적 변용과 응용 서예론을 제시하며 서예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했으며, 그 결과 그림과 글씨, 그림과 새김, 캘리그래피 등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전통서화에 아우르는 서화예술의 활성화에 꾀해왔다.

류재학 작가의 작품은 센터와 인접한 인쇄·출판이라는 문화적 환경을 반영해 인쇄출판 문화의 근간이 되는 미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센터의 장소적 특성을 알리고 동시에 미술장르의 다양성을 소개하고자하는 기획의도를 잘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웃음 (35x67cm 화선지에 먹 2009)



知足樂 (40x45cm 화선지에 먹 2016)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재료와 도구, 기법을 바탕으로 한 서예가의 정신과 그 근본을 나타낸 서예를 비롯해 회화, 전각, 서각에서부터 실용을 목적으로 제작했다. 인장, 현판,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재료와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서화 작품까지 출품되어 서예의 다양성과 현대적인 조형미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자와 서체를 활용해 펼쳐진 두 번의 「間」 특별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인 감상을 넘어 전통의 정체성과 함께 현대화된 서화예술의 깊은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전시가 문자의 기본 역할인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인쇄출판문화진흥에 예술과 결합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기획의도가 전해졌기를 기대한다.



순수인장

01 지상 최고의 브라스 앙상블 대구에 오다 모질브라스 첫 내한공연

글·사진 이성욱(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세계 최고의 금관 앙상블로 평가받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모질브라스'가 대구에 왔다.

달서문화재단에서 초청한 모질브라스는 이번이 첫 번째 내한이다. 지난 10월 29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두 번째 명아티스트 시리즈로 마련한 '모질브라스' 공연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그들의 연주 실력과 무대연출, 재치 있는 연기와 노래 솜씨까지 유감없이 볼 수 있는 무대였다. 유튜브를 통해 이미 그들의 연주력이나 퍼포먼스는 정평이 나있는 만큼 공연 일정이 알려지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많은 금관악기 전공자들과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지역 음악계에서도 큰 이슈거리가 되었다.

42



MnozilBrass

모질브라스의 구성과 다르게 금관 7중주단(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1)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래식을 보다 재밌고 멋있게 재구성한 수많은 프로그램과 독창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 연출력을 보유한 단체로,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공연장으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연간 120여회가 넘는 공연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상 최고의 브라스 앙상블이다.

서울, 부산 공연을 매일 연달아 휴식 없이 소화한 후 29일 대구에 도착한 멤버들은 매우 피곤해보였다. 하지만 리허설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반전되고 활발해졌다.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들려준 사운드는 웅장하고 강력했다. 국내에선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였다. 연주자들에게 긴장감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유로움 속에 세계적인 앙상블의 노련함이 느껴졌다.



이번 연주는 1일 2회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모질브라스 측의 배려로 1, 2부 공연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부 공연은 영화 '씨 호크'의 메인테마로 화려하게 시작했다. 초반부터 강력한 사운드와 댄스, 노래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거기다 슬랩스틱 코미디까지 가미하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팝 메들리 연주에서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소통을 넘어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연주는 흔들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약속된 레퍼토리가 끝나고도 관중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뜨거운 환호 속에 앙코르 곡들을 연주했다. 특히 보헤미안 랍소디에서는 일반 록 보컬들도 내기 힘든 음역대를 소화하며 놀라운 가창력도 선보였다. 관악기 연주에 노래, 춤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었다. 30분 휴식 후 이어진 2부 공연에서도 모질브라스의 사운드는 여전했다. 공연 종료 후 관객들의 입에선 '역시 명불허전이다', '경이로운 연주력!', '관악 공연의 신세계를 봤다'는 등 극찬 일색이었다.

모질브라스의 첫 내한 공연을 이렇게 총평하고 싶다. 코믹함과 경쾌함 속에 흐트러지지 않는 연주의 기본과 중량감. 개그적인 동작들 속에 숨어 있는 위트, 실 새 없는 댄스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풀 톤(full tone)을 유지한 연주였지만 음악적 실수를 찾기는 힘들었다. 화려하고 코믹해 보이는 그들이지만 연주는 역시 기본에 충실했다. 우스꽝스러운 연출과 대중적인 레퍼토리 속에서도 그들의 연주는 깊이가 있었다. 우리들에게 전무후무한 관악 공연을 보여준 모질브라스.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한국에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Mnozil Brass



02 지역의 최고 성악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다

베르디 베스트 컬렉션

글·사진 이성욱(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19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오페라의 황제' 주세페 베르디.

베르디의 노래는 세월을 초월해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예술·문화' 시리즈 3번째로 선보인 '베르디 베스트 컬렉션'은 베르디의 주요 오페라 작품 중 <라 트라비아타>, <돈 카를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맥베스>, <리골레토> 총 5편의 작품 중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리아와 중창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44



라트라비아타-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배진형과 테너 박신해의 '라 트라비아타'의 아리아로 시작한 첫 무대는 '이상해...아 그이인가...언제나 자유롭게', '그녀 없이는 내 마음에 행복없네', '사랑하는 이여...파리를 떠나서'를 선보였다. 특히 '아 그이인가'는 콜라투라적 기교와 극고음을 필요로 하는 곡으로, 고음처리가 탁월한 소프라노 배진형이 화려한 음색으로 멋지게 소화해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근 나비부인 핑커튼 역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테너 박신해는 리리코의 테너 감성을 그대로 발산해내며 알프레도의 아리아를 노래했다. 이후 이중창에선 죽음을 앞둔 비올레타와 슬퍼하는 알프레도, 두 인물의 느낌을 탁월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곡에 녹아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다음 작품인 돈 카를로에선 테너 노성훈과 바리톤 석상근, 메조소프라노 손정아가 출연하여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오 저주스러운 미모여'를 연주 했다. 국내외 오페라 주역 및 유럽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노성훈과 '동양의 피에로 카푸칠리'로 불리며 테너 호세 카레라스에게 인정받은 바리톤 석상근이 들려준 '우정의 이중창'은 명성만큼 두 성악가의 강한 소리가 돈 카를로와 로드리고의 비장함을 여지없이 표현했으며 더불어 이중창을 부르는 상대연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던 무대였다.



돈 카를로 중이중창(테너 노성훈, 바리톤 석상근)

이후 지역 최고의 젊은 메조소프라노로 손꼽히는 손정아는 여성성과 매력이 돋보이는 에블리 공녀로 등장해 기구한 운명을 노래한 '오 저주스러운 미모여'를 격정적이고 가슴 절절한 소리로 표현해내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지역 출신 최초 중앙콩쿠르 1위, 국립오페라단 주역 및 최근 불후의 명곡 등 방송 출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프라노 이윤경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의 볼레로풍 아리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받고 경건하면서도 경쾌한 멜로디 라인을 화려한 가창력과 팔색조의 표현력으로 들려줘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인터미션 전의 마지막 무대는 오페라 '맥베스'로 이어졌다. 테너 노성훈이 맥더프의 아리아 '오 아이들아, 나의 아이들아...'를 처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애틋한 정을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노래했으며 바리톤 석상근이 맥베스 최후의 아리아 '동정, 존경, 명예'를 드라마틱한 가창력과 연기로 선보이며 1부 무대를 마쳤다.

2부 무대에서는 오페라 '리골레토'를 선보였다. 지역 최고의 콜라투라 소프라노 '마혜선'과 2015년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올해의 성악가 상'에 빛나는 바리톤 제상철, 화려한 스케일의 레제로 테너 김동녘, 소프라노 이윤경, 메조소프라노 손정아까지 출연해 베르디 음악회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첫 곡인 '그가 훌륭한 분이 아니었으면, 사랑은 영혼의 태양'을 소프라노 이윤경과 테너 김동녘이 나와서 만도바와 질다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노래와 함께 채지 있는 연기력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다. 이후 질다의 아리아 '그리운 이름이여'를 소프라노 마혜선이 유려한 고음과 절제된 감정선으로 선사해 무대를 더욱 아련하게 만들었다.

Giuseppe, Verdi

리골레토의 아리아이자 바리톤의 대표적인 곡인 '천벌을 받아 없어질 놈들아'는 바리톤 제상철의 출중한 기량으로 오페라 무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이중창 '모든 축복 받은 날에'는 소프라노 마혜선과 바리톤 제상철이 아버지와 딸의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했으며, 테너 김동녘의 독창 '여자의 마음'에 이어 유명한 리골레토 4중창 '언젠가 너를 만날 것 같다'를 끝으로 베르디 오페라 여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관객들의 아쉬움이 담긴 끝없는 커튼콜에 전 출연진이 등장해 라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앙코르 곡으로 노래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베르디 베스트 컬렉션 피날레

이번 연주의 반주는 독창회의 반주자와 오페라 코치로 활동 중인 장윤영 피아니스트가 맡았으며, 해설은 RAMK 오페라 연구소 장재영 대표(영국왕립음악원 한국지사 사업부 대표)가 맡아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나갔다. 지역 출신 최고의 오페라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주력은 기대했던 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세련된 무대세트와 영상 연출, 특수 효과도 이번 공연의 백미 중 하나였다.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베르디 베스트 컬렉션, 내년에는 어떤 작곡가의 베스트 컬렉션으로 돌아올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03 '재즈에 스며들 듯... 가요에 빠져들 듯...' 성기문의 All That Jazz!

글 김은주(문화정책실장) | 사진 달서문화재단 제공

'이보다 더 편안한 연주가 있을까?'

지난 11월 16일 가을밤, 와룡홀을 풍성하게 채운 'All That Jazz!' 그윽한 재즈의 향연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한 무대였다.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화음을 들려준 성기문의 'All That Jazz'는 연주자와 관객이 감성으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무대를 즐기는 시간이었다.



'재즈에 스며들 듯... 가요에 빠져들 듯...'을 주제로 달서문화재단이 선사한 아홉 번째 스마일 토크 콘서트, 'All That Jazz!'는 성기문, 김명환, 강성민이 들려주는 재즈 선율에 박재홍의 블루스가 더해져 자유와 절제를 녹여내는 그들만의 음악을 안정적인 무대로 들려줘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All That Jazz!

성기문(피아노), 김명환(드럼), 강성민(베이스), 박재홍(보컬) 4명의 남성뮤지션들이 화음을 탐색하고 선율을 재창조하는 즉흥연주로 이어지는 보기도문 공연에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냈으며, 곡마다 피아노를 비롯해 더블베이스와 드럼의 탁월한 개인기가 이어질 때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피아니스트 성기문이 편곡한 가요 '미련, 그 때 그 사람, 비처럼 음악처럼, 나 하나의 사랑, 황성옛터, 나는 열일곱 살이에요, 거리에서, 상록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란셔츠의 사나이' 등 10여 곡을 자유로운 재즈 선율로 들려줬으며, 더불어 성기문과 김명환이 주고받은 노래에 담긴 이야기는 공연의 즐거움을 더했다. 우리의 정서가 듬뿍 담긴 가요에 이어 스탠더드 재즈의 진수인 'Gorgia on my mind'를 앙코르로 들려줘 그야말로 아낌없는 무대를 보여줬다.

재즈 피아니스트 성기문은 "재즈로 편곡된 가요를 통해 우리들이 간직한 지난 시절의 추억을 음악으로 되 새겨보길 바란다"며, "곡마다 이어지는 연주자들의 즉흥연주는 색다른 스타일의 공연문화를 관객과 함께 자유롭게 즐기고자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연을 마친 후 사인회에 줄지어 서있던 관객들은 "마치 향기로운 한 잔의 와인을 음미하듯 부드러운 멜로디가 온 몸을 감싸는 기분이었다"며 "가을에 딱 어울리는 즐거운 공연에 감사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요를 재즈로 편곡해서였을까! 연주자도 관객도 한층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우리 정서가 가득한 아름다운 음악들로 관객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올 댓 재즈!' 가을 정취와 함께 따스한 낭만이 가득한 만추(晩秋)의 밤이었다.

“ 마치 향기로운 한 잔의 와인을 음미하듯
부드러운 멜로디가 온 몸을 감싸는 기분이었다 ”

유럽미술기행

이탈리아 미술관 여행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의 특별전 외

글 · 사진 김영동



메트로 두오모 역에 내려 광장에서 본 밀라노 대성당 Duomo di Milano. 밀라노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상징적인 건물이다.



측면에서 본 밀라노 대성당(Duomo di Milano)의 위용. 흰색이 햇빛에 눈부서 멀리서 보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소소한 여행 이야기

유럽미술관 기행 연재를 시작하고부터 자연스럽게 여행 횟수가 좀 더 잦게 되었다. 올해는 지난 1월과 5월 그리고 여름의 끝자락에 또 한 번 모두 세 차례 다녀왔다. 전에는 주로 특별한 전시회를 보러가거나 지방에 있는 작은 미술관들을 찾아다니며 독특한 컬렉션들을 살펴왔지만 그러는 동안 이탈리아 쪽을 여행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아주 오래전 가본 로마나 피렌체를 제외하곤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에 있는 미술관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두 도시들을 포함해서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대략 보름간의 일정으로 둘러보았다. 우선 값싼 항공권부터 물색했었는데 한창 성수기는 비켜난 8월 말과 9월 초에 걸쳐있는 기간이었으므로 마침 적당한 가격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숙박 사정도 한결 여유로워진 때라 경비도 꽤 절약이 되었던 것 같다.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국가인 만큼 위, 아래 어느 한 곳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반대편 끝 지점에 가서 여행을 종료하게 될 터인데 이럴 경우 대개는 출 · 도착을 달리해서 항공권을 사

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출발지점으로 다시 되돌아 와야 하는 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갈 경우라면 밀라노나 베네치아로 나오는 편이 유익하겠는데 적당한 가격의 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해 피렌체를 거쳐 베네치아와 밀라노를 차례로 방문한 다음 다시 로마로 돌아와야 했다.

여하튼 마지막 며칠을 로마에 더 머물면서 짧은 일정에 쫓겨 지나쳤던 곳들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 간 이동시에는 이탈리아 철도 패스를 구입해 사용했었는데 패스를 알뜰하게 사용한 덕에 이용 기간에 하루가 더 남아있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던 밀라노를 당일 일정으로 재차 갔다 오기도 했다. 아침 일찍 로마의 숙소를 나서서 이른 시간대의 기차를 타고 그곳 미술관이 문을 열 오전시간에 밀라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브레라 미술관의 그 많은 소장품을 그렇게 해서 다시보고 저녁 기차로 돌아오는 데 하루를 꼬박 쓰기도 했었다.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는 가장 빠른 열차, '페레치아로싸(Ferecciarossa)1000'이 볼로냐를 경유하여 3시간 만에 밀라노 중앙역에 도착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레일패스나 이탈리아 레일패스를 끊어 가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1등 칸을 이용할 수 있다. 승객에겐 무료 와이-파이와 약간의 음료, 다과, 신문 등이 제공된다.

이탈리아 기차

프랑스와 국경을 면한 이탈리아 서북단 토리노에서 남쪽 나폴리까지를 평균 시속 300km 정도로 오가는 '페레치아로싸' 기차를 타게 되면 로마와 밀라노 사이를 2시간 55분 정도에 주파한다. 하루 일정에 이 두 도시 간을 왕복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열차 패스 기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같이 장거리 노선을 초고속열차로 이동할 경우나 하루 안에 다 구간을 이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유레일패스를 잘 선택해서 구입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적은 차액으로 1등 칸을 탈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은데 1등 칸 이용 승객에겐 몇 가지 여행자들에게 요긴한 편의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밀라노를 다녀오려고 계획한 날 숙소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났다. 로마 중앙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유스호스텔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일이십 분이면 충분히 테르미니 역까지 갈 수 있었고 좌석은 전날 예약을 해 두었다. 예약비는 별도지만 운임은 패스를 소지한 날짜에 한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다. 그래서 혹여 기차를 놓치더라도 큰 손실이 없으며 예약이 필요 없는 기차일 경우는 아무 시간대의 것이든 탈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



남북을 축으로 길게 이어진 이탈리아 철도망의 약도. 붉은 선으로 표시된 고속철 노선과 그 사이 사이에는 많은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탈리아 북부(롬바르디아 지역)의 중심도시 밀라노의 미술

아침 7시 경에 숙소를 나선 것이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밀라노에 도착했다. 역사 아래가 바로 지하철 중앙(Centrale)역이고 2개 노선 중 하나인 Line3이 곧바로 밀라노 관광의 중심지이자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오모(Duomo)를 지난다. 메트로 출구를 빠져나오면 바로 너른 광장의 인파와 맞닥뜨리게 되고 멀리 웅장하고도 화려함의 극치인 고딕 대성당의 위용이 시야에 들어온다. 피렌체의 두오모도 그렇지만 켈른 대성당이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등 유럽 대성당들이 거의 모두 좁은 골목과 주변 건물들에 에워싸여 전체 모습이 잘 조망되지 않다가 바로 가까이 가서야 전모를 보게 된다. 그러나 밀라노 대성당은 광장을 앞에 두고 있어서 파사드(건물 정면부)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드문 예에 속한다. 게다가 대체로 검붉은 석재의 북유럽 고딕건물들에 비해 햇빛 속에 밝게 빛나는 성당 외벽의 조각이 너무나 새하얗서 복잡하고 거대한 부피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다.

밀라노에 많은 미술관들은 이 대성당을 중심으로 사방 멀지 않은 거리 내에 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벽화를 간직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찌에 성당이 있다. 그러나 그 프레스코화는 보존문제로 인해 관람 인원이나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예약이 필수라는데 그것도 보통 4개월 전에는 해야 한다고 하니 여간해서는 구경할 엄두를 못 낸다. 반면에 대성당 건너편으로 십여분 걸으면 암브로시ানা(Pinacoteca Ambrosiana) 미술관이 있다. 이곳은 국립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관을 겸하고 있기도 해 각종 드로잉 작품을 포함한 수많은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바티칸 라파엘로의 방 가운데 '서명의 방'에 그려진 프레스코 화 '아테네 학당'의 밑그림으로 제작한 드로잉도 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원본과 같게 실물 크기로 제작된 이 소묘도 보존상의 이유로 상설전시는 않지만



성 암브로지오 교회 건물과 함께 있는 회화관(Pinacoteca Ambrosiana) 건물, 밀라노의 유서 깊은 시립미술관들 중 한 곳이다.



Pinacoteca Ambrosiana가 속해 있는 건물의 내부 발코니에서 내려다 본 정원과 회랑의 전경.

생생한 영상에 담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나코테카(회화관)에는 르네상스 대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바로크 시대 등 주로 이탈리아 북부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미술관은 작품 전시실의 조명효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조명을 함으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점이 꽤 인상적이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의 밑그림, Preliminary cartoon for the School of Athens.

'아테네 학당' 밑그림(Preliminary cartoon for the School of Athens)의 전시를 준비하던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

스포르체스코 성(Castello Sforzesco)과 그곳의 미술관들

두오모에서 밀라노의 유명한 패션 중심가를 통과해 10여분 걸으면 밀라노 성이 있는 피아짜 카스텔로(Piazza Castello)가 나온다. 밀라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이곳 스포르체스코 성(Castello Sforzesco)은 큰 공원을 끼고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처이면서 수많은 걸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들을 여럿 그 성 내부에 품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 작으로 알려져 있는 미완성 조각,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이 입구에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고딕 후기의 조각들을 다량 전시하고 있는 '고대미술관'이 그리고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크까지 이탈리아 미술 특히 롬바르디아지방 출신 작가들의 그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회화 갤러리 '피나코테카'가 연이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밀라노의 대표미술관이라 할 만한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 역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도시가 과연 르네상스 이래 이탈리아 북부에서 미술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한 지역임을 깨닫게 한다.



밀라노 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인 스포르체스코 성(Castello Sforzesco).



고대미술관(Museo D'Arte Antica) 내의 한 모습.

BREERA

브레라 미술관 (Pinacoteca di Br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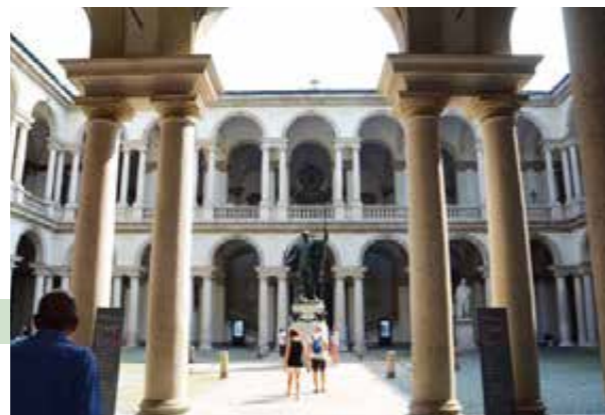
카스텔로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브레라'는 밀라노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미술관이다. 건물은 도로에서 볼 때는 붉은 벽돌로 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내부정원을 가진 2개 층의 아케이드 건물로 되어있다. 1층에는 미술아카데미가 있고 회랑으로 둘러싼 상층이 갤러리다. 마당에서부터 많은 조각상들이 보이는데 중앙에 대형의 나폴레옹 동상이 눈에 띈다. 신고전주의 조각가 카노바에 의한 것인데 로마시대 신상 조각 풍으로 신격화 되어있다. 이 청동조각의 석고 카피가 2층 갤러리 실내에 다시 설치되어 있다. 오늘날의 브레라 미술관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덕에 1809년 문을 열었다고 한다.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전시실 입구.

2층 전시실로 들어서면 오래된 건물인 만큼 입구서부터 프레스코 벽화가 남아 있는 흔적들을 만나게 되어 이 건물의 유서 깊은 내력을 짐작하게 한다. 건물의 입지에 관한 역사는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4세기 수도원 유적 위에 세워졌었다고 한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오스트리아 황후 마리아 테레사의 중재 덕에 미술아카데미가 이 건물에 들어왔다. 아카데미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최고 수준의 예술작품 컬렉션으로 태어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브레라 미술관은 대개의 미술관들과 달리 개인 컬렉션에서 출발하지 않은 유럽 최초의 유일한 공공 미술관이라 한다. 군주들이나 귀족들에 속한 사적 컬렉션에 의존해 설립되지 않고 국가에 의한 정치적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도로에서 본 Palazzo di Brera의 건물 외부 입구 쪽.

회랑으로 둘러싸인 Brera 건물의 내부 모습.



작품들은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이탈리아 및 유럽 걸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라노가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였을 당시 억압받았던 교회와 수도원들로부터 가져온 이탈리아 미술의 걸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뒤에도 컬렉션은 교환, 취득, 증여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전시실 전반부에는 특별전으로 꾸미고 이어서 고전 컬렉션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란디를 비롯한 이탈리아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으로 마감을 시키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미래주의 작가들의 초기작업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이탈리아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것도 아주 눈에 띄는 점이다.



Brera 미술관 실내 모습.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의 'The Marriage of the Virgin, 1504'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코의 대표작 '성모자와 성인들, 1472-74'가 전시되고 있다.



피에르 보나르의 부인상(1917-25) 한 점과 모델리아니의 '화가 키슬링의 초상'과 Head of a Young Lady(1915).

'다이얼로그(대화)'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개성 있는 특별전

브레라 미술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대화 Dialogues'라는 연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특별전이었다.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문제작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작은 전시회인데 흔히 타 기관으로부터 다량의 작품을 빌려와야 가능한 대형 기획전을 피하고 소규모로 알찬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였다. 일반적으로 대형미술관들은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블록버스트 전시를 기획한다. 수많은 원작들을 한 자리에 모아 관람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매번 일회성 전시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이 미술관은 그런 블록버스트 전시를 지양하고 전시 장소의 역사성과 공간성에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전시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이 미술관의 정책에도 그와 같은 맥락의 설립 정신이 반영되어 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술관의 입구에서부터 공공성에 있어서 차별성을 강조하며 운영 방침과 전시기획 과정까지 관객들과 공유하며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브레라 미술관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완성시킨 대작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큰 의미를 깨닫게 했던 것 같다.

‘대화’라는 기획전의 이번 주제는 안드레아 만테냐의 원근법이였다. ‘만테냐: 새로운 원근법 Andrea Mantegna: New Perspectives’이란 제목으로 만테냐 사후 그의 작업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인상의 한 작품 ‘죽은 예수에 대한 비탄(c.1483)’을 조명했다. 만테냐는 죽은 예수의 시신을 발밑에서 얼굴 쪽으로 올려다 본 극단적인 단축법으로 묘사했는데 단축법이란 원근법의 일종으로서 르네상스의 자연주의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술의 하나였다. 만테냐의 이 획기적인 이 작품을 중심에 두고 동일한 주제의 다른 두 작품, 안니발레 카라치의 16세기 말의 작품과 보르기아니의 17세기 작품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참조하게 하는 것이었다.

먼저 르네상스 미술에서 자연주의가 발전하는데 원근법(단축법), 해부학, 인체비례 이러한 지식이 작가에 따라 어떻게 달리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고 시대를 뛰어넘어 어떻게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갔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르네상스 미술의 자연주의는 합리적인 자연 재현을 어떻게 미적 조화 속에 구현시켜 내느냐는 문제였고, 거기에서 감정을 정서를 불어넣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바로크의 미술로 발전해갔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기획이었다. 이런 식의 작은 주제전이야말로 진정으로 관객과 시민들을 미술관의 미션 속으로 깊숙하게 불러들이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볼게 했다.



Pinacoteca-Brera의 기획전 포스터

Pinacoteca-Brera의 기획전 포스터

만테냐가 최후 작으로 남긴, 미스터리한 원근법이 적용된 작품 ‘Lamentation over the dead Christ, c.1483’을 놓고 동일한 주제의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한 특별전의 광경.



Annibale Carracci, Corpse of Christ, c.1585



Orazio Borgianni, Lamentation over the dead Christ, c.1613



Mantegna, Lamentation over the dead Christ, c.1483. Brera 미술관의 가장 대표적인 소장품 가운데 하나다.



Andrea Mantegna, The Dead Christ and Three Mourners, 디테일(부분)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옷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11)

가슴으로 듣는 영화음악 }

| 글 권순환 |

1895년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 최초의 영화가 상영된 지 벌써 1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초의 영화는 필름을 빠르게 돌려보는 형식이었고, 따로 음성이 지원되지 않는 무성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는 영화의 진행에 따라 상황설명이나 대사를 대신 해주는 '변사'라는 직업이 있기도 했습니다. 무성 영화 시절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변사'...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직업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는 어떤 신박한 직업이 생겨나고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화의 발달에 따라 '무성영화와 변사'라는 조합은 축음기의 발명과 함께 유성 영화로 진화하게 됩니다. 1927년 '재즈싱어'라는 영화로부터 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영상과 음악의 결합은 영화 산업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한 장르가 되어가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영화들이 제작되기에 이릅니다.

초기의 영화음악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자 악기가 보편화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고, 영화 음악 역시 어쿠스틱 악기로만 연주되고 재생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유성영화 '재즈싱어' 역시 어쿠스틱 악기들과 주인공이던 '알 존슨'의 목소리가 영화음악의 주 소재지요...

하지만 1924년 러시아의 음향물리학자인 레온 테레민에 의해서 최초로 전자 악기가 발명되었고, 20여년 뒤인 1945년에는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이 감독한 영화 '스펠바운드'에 사용됨으로 영화음악에 처음으로 전자 악기의 소리가 사용되며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에는 클래식은 물론,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영화의 OST로 사용되며 아예 따로 분리되어 연주되고 감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뇌리를 스치는 수많은 영화음악 중 소개할 음악들을 정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 중 몇몇 영화음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1 피아니스트의 전설 「The Legend of 1900」 - 'Playing Love' 'Magic Waltz'

| 감독 : 주세페 토르나토레 / 작곡자 : 엔니오 모리코네 / 주연 : 팀 로스, 프루이트 테일러 빈스 |

음악영화 하면 떠오르는 몇몇 영화 중 피아니스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많습니다. 그 중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나인틴 헌드레드'는 피아니스트이긴 한데 배 위에서 태어나, 배 위에서 자라고, 배 위에서 살아갑니다. 배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특이한 사람이지요...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만, 그는 그것마저 일상인 듯 파도 때문에 이리저리 수평이 맞지 않아 여기저기 움직이는 피아노와 함께 배 여기저기를 유영하듯 움직이며 피아노를 칩니다. 영화의 런닝타임은 매우 길지만 다양한 연주장면과, 탄탄한 스토리로 그 시간을 지루하다고 느낄 새가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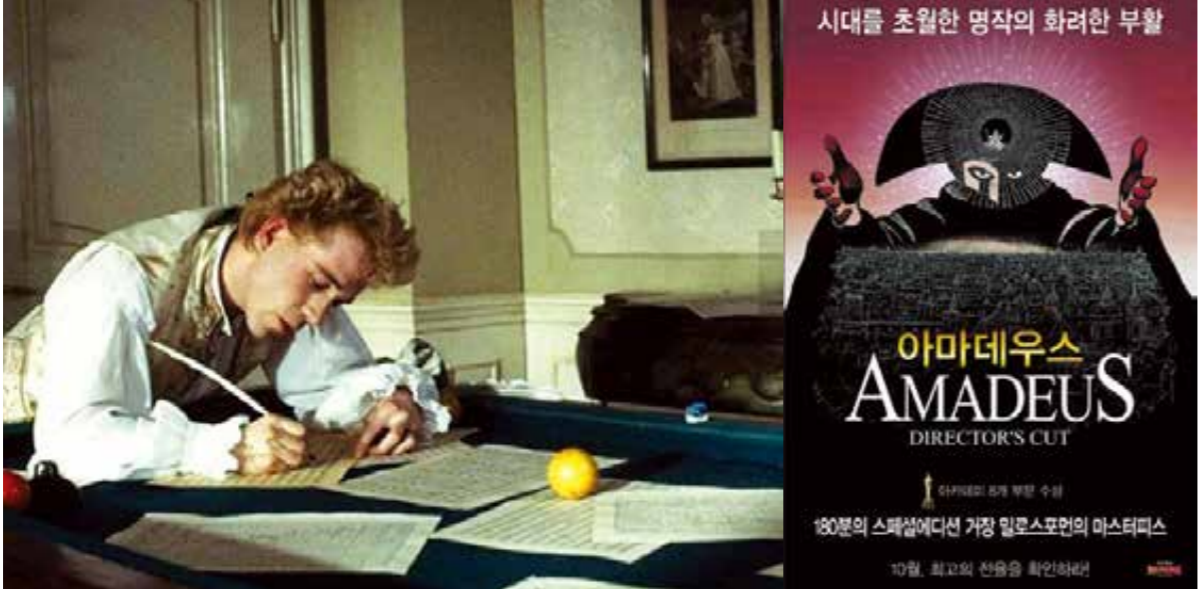
또한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피아노 배틀 장면의 모티브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연주 배틀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격렬한 피아노 연주 후 피아노 현에 담배를 올리자 거짓말같이 담배에 불이 붙어버리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만, 영화상에서의 그 장면의 임팩트는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악기인 피아노가 전면에 등장하기에 클래식 곡들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영화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감독을 맡아 다양한 곡으로 관객들의 귀를 호강시켜줍니다. 특히 창밖의 소녀를 바라보며 연주하는 'Playing Love(플레이잉 러브)', 'Magic Waltz(매직 왈츠)'는 무척 많은 취미연주자로 하여금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피아노학원의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실제로 제대로 연주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곡입니다.)

실제로 영화상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다른 연주자들의 피아노 연주는 실제 연주가 아니라 손가락은 대역을, 풀 샷으로 신체 전부를 찍는 연주장면에서는 실제연주자의 몸짓을 최대한 비슷하게 수많은 연습 후에 촬영에 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저 역시 미리 녹음을 해놓고 앞선 방식으로 영상녹화를 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음악소리에 맞춰 몸동작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훨씬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작품성은 물론이고 음악 역시 너무 훌륭하기에 각종 포털의 평점이 9점을 가뿐히 넘어가는 영화입니다. 또한 트렌디물이 아닌 190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기에,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유행에 뒤쳐지지 않더군요. 옛날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잘 만든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명작입니다. 연말을 보내며 시간이 날 때 이 영화를 한편 감상하시는 것... 새로운 마음의 양식이 될 것 같아 적극 추천합니다.





02 아마데우스「AMADEUS」-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 감독 : 밀로스 포만 / 작곡가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주연 : 머레이 아브라함, 톰 헬스 |

천재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600여 곡을 남긴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인 만큼 정말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로만 알려진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모습은 물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행한 결혼 이후 생활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인 콘스탄체가 그의 악보를 몰래 들고 나가서 왕실음악가의 자리를 얻기 위해 청탁하는 내용이나 살리에르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차르트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화에 언급된 것처럼 실제로도 모차르트의 원본 악보에는 작곡을 수정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결혼 후 아이를 보게 되고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악보에 생활비를 계산한 흔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화상에서 다뤄지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작곡된 곡이 교향곡 39~41번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세 곡을 단 두 달 만에 작곡했습니다. 보통 작곡가들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2달에 3곡이라니 3주에 한 곡을 작곡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차르트 역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를 보면 넓은 집에서 집 안에 당구대까지 설치해놓고 살았던 모차르트의 소득은 실제로는 상위 5%안에 드는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컸기에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특히 단조로 된 곡을 거의 쓰지 않는 모차르트였지만, 이 시기 모차르트가 작곡한 교향곡 40번은 G단조의 우울하고 처량한 멜로디로 시작되고 2악장만 장조로 바뀌고 3,4악장 모두 단조로 작곡되었습니다. 특히 4악장은 마치 베토벤의 초기 작품이 연상될 정도로 심각하고 격렬하게 마무리 됩니다. 가정과 아이를 책임지기위해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모차르트의 모습이 녹아들어 있는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곡을 작곡하고 3년 뒤인 1791년 모차르트는 너무나도 젊은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카를 뵘이 지휘하고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도이치 그라모폰의 앨범은 정말 대단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느린 템포로 음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카를 뵘의 완벽주의적인 해석과 모차르트의 모국인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비엔나 필하모닉의 호흡은... 연주의 완성도가 아주 높은 음반으로 평이 나왔습니다. 비엔나 필하모닉은 수백 년 된 고악기를 사용하고 비엔나 출신이 거의 대부분인 전통을 고수하는 세계적 관현악단이죠. 4악장의 경우엔 수십 명의 바이올린주자들이 비브라토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클래식 연주의 재미있는 부분은 지휘자와 교향악단에 따라서 같은 곡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도 연주된다는 점입니다.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버전은 더 빠른 템포지만, 도들이표를 다 지키기에 연주시간은 훨씬 길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들어보면 두 연주 사이의 차이점과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03 록키「Rocky」- 'Gonna fly now'

| 감독 : 존 G. 아빌드센 / 작곡가 : 빌 콘티 / 주연 : 실베스터 스탤론, 탈리아 샤이어 |

영화음악 중 영화를 보고 난 후 음악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그 음악을 들으면 떠오르는 영화나 장면이 생각 날 정도로 유명해진 곡들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메인테마, 타이타닉의 주제가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바로 록키의 주제가인 'Gonna fly now'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Gonna fly now' ...
복싱 자세로 두 팔을 번갈아 뻗으며, 열심히 달려가던 록키의 모습이...
관악기의 팡파르로 시작되는 이 곡의 가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지만, 강해질 것이고 높이 날아 갈거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영화상에서 무명의 복서였던 록키가 강한 상대와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전부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내면서'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내용을 그려낸 록키의 줄거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리즈물로 제작되며 상업영화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마지막 편인 '록키 발보아'에서는 전작의 실수를 멋지게 AS해냈다는 평을 들으며 화려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Gonna fly now'는 록키 시리즈에 수없이 삽입되며 록키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영상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마지막편인 '록키 발보아'에서는 현 세계챔피언인 디슨을 이기기 위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원초적인 훈련방식으로 몸을 단련해나가는 록키의 모습과 오버랩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특히 엔딩 크레딧에 필라 뮤지엄의 계단을 록키 훙내를 내며 뛰어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하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 BGM으로 삽입된 'Gonna fly now'는 단순한 하나의 영화 음악이 아니라 주제곡인 'Gonna fly now'가 록키와 하나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이 곡을 틀어놓고 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웬지 모르게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젊은 챔피언과 대결을 준비하는 할아버지 록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힘이 솟아난다고 할까요. 살찌기 쉬운 가을과 겨울, 이 음악을 들으면서 땀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음악과 함께 지도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60

04 피아니스트 「The Pianist, 2002」 - '쇼팽 발라드 1번 g단조'

| 감독 : 로만 폴란스키 / 작곡자 : 프레드릭 쇼팽 / 주연 : 애드리안 브로디, 토마스 크레취만 |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 피아니스트의 실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나치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쇼팽의 대가'로 묘사되며 많은 쇼팽의 명곡들이 BGM으로 흐릅니다. 특히 숨어있던 피아니스트를 찾아낸 독일군 장교가 '직업이 무엇인가?' 물을 때 '피아니스트'라고 대답하자 피아노를 연주하게 해주는데, 여기서 흐르는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장면입니다.



특히 발라드 1번은 쇼팽이 살아있을 적에도 '내가 작곡한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자화자찬한 곡으로 알려져 있지요. 정말 10분 정도 되는 곡에 다양한 감정과 많은 에피소드가 녹아있는 곡입니다. 저도 이 곡을 녹음해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주자로서 도전하게 되는 곡입니다. 수많은 대가들의 많은 명반이 나와 있지만, 저는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테카에서 출판한 음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녹음된 음반이기에 디지털방식으로 녹음되어서 뛰어난 음질은 물론 쇼팽을 포함한 다양한 작곡가의 연주와 지휘 활동까지 병행하는 아쉬케나지의 음악적 내공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음반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영화를 일상생활 중 계속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영상이기에 눈과 귀를 다 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좋은 영화음악이라면... 이어폰을 이용해 거리를 활보하며, 또는 차 안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으며 영화를 되새겨 보는 건 가능하겠군요. 아, 저도 이 글을 쓰면서 '피아니스트의 전설'에 나왔던 Playing Love를 듣고 있군요...

좋은 영화, 좋은 영화음악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보시는 것 어떨까요?



권순환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40여 장의 클래식 개인앨범 발매, 60여 장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약
- 이지클래식,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체르니 콘서트 등 참신한 공연으로 매진행렬 및 호평
-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출간, 국립중앙도서관 우수도서 선정 및 베스트셀러 진입
- 계명대학교, 신한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 출강, 네오뮤지카 대표로 재직

그 겨울, 논개를 만나다

글 · 사진 권다현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썩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그대는 어데 있느냐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 만해 한용운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중

만해 한용운을 비롯해 다산 정약용과 시인 고은 등 수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선의 의녀 논개. 이토록 흠모하는 이 많은 그녀이지만 정작 논개의 일생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 그녀의 죽음이 혼란스러운 전쟁 통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거니와,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질 당시 그녀의 공식적 신분이 ‘기녀’였다는 사실이 뿌리 깊은 유교사회에선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장엄하고 비장한 죽음을 목격한 진주성민들만은 기억에 기억을 거듭해, 민간에 전해지는 야담을 모아 적은 유몽인의 문집 <어우야담(於于野譚)>을 통해 최초로 문헌에 논개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18세기 초에 이르러선 마침내 나라로부터 순국 사실을 인정받고 추모제도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100여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후였으니 논개의 흔적을 되짚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의로운 기생으로만 기억될 뻔했던 논개는 그녀를 아끼는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 끝에 19세기 들어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에 적힌 한 줄 글에서 희미한 삶의 흔적을 드러내게 된다.

“공의 부실(副室)이 공이 죽던 날 좋은 옷을 입고 강가 바위에서 거닐다가 적장을 유인해 끌어안고 죽어 지금까지 사람들은 의암이라고 부른다.”

<일휴당실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최경희 장군의 일대기를 정리한 문헌으로,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 되어 금산과 무주 등지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고,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안타깝게 전사했다. 문헌에 등장한 진주성의 의암과 논개가 몸을 던졌던 의암이 일치하니 논개가 최경희의 부실(첩)이었을 거라는 가설이 세워진다. 이로써 조금씩 추측이 가능해진 논개의 흔적을 따라가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전라북도 장수로 향한다. <호남절의록> 등 다수의 문헌과 구전을 통해 재구성한 논개의 일생을 되짚어



의암사

보자면 그녀는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으로 성은 주씨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훈장을 했던 인물이라고 하니 애초 논개의 신분은 양반가의 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논개가 태어난 마을로 알려진 주촌마을에 의암주논개생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한겨울 매서운 겨울바람을 끌어안으며 찾아간 생가지에는 어렴풋한 흔적으로만 남아있던 논개의 생애가 제법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에게 의지해 살던 그녀는 어린 조카를 민며느리로 팔아넘기려는 숙부의 계락을 눈치 챈 어머니와 함께 외가로 도망쳤다가 관아에 붙잡히게 된다. 당시 장수현의 현감이 최경희였고, 모녀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그는 이들을 관비 신분으로 관아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한다. 이후 최경희의 부실이 된 논개는 최경희가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당시 그를 뒷바라지했을 뿐 아니라, 진주성 싸움 당시엔 성 안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진주성이 함락되자 최경희는 남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고, 이에 논개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관기로 이름을 올리는 과단성 있는 선택을 한다. 그 이후엔 우리가 알다시피 왜장들의 자축연에 참석해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의연히 강물로 뛰어들게 된다.

보자면 그녀는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으로 성은 주씨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훈장을 했던 인물이라고 하니 애초 논개의 신분은 양반가의 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논개가 태어난 마을로 알려진 주촌마을에 의암주논개생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한겨울 매서운 겨울바람을 끌어안으며 찾아간 생가지에는 어렴풋한 흔적으로만 남아있던 논개의 생애가 제법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



논개생가지

논개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자 쓸쓸히 홀로 눈발을 맞던 의암사에 이르니 축석루에서 몸을 던진 의기 논개가 장수 사람임을 밝히는 비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될 뻔 했던 것을 장수 사람들이 기지를 발휘해 지켜낸 것이라 한다. 그들에게 영웅이었을 왜장의 목숨을 앗아간 여인을 기리는 비석이었으니 당연히 산산조각 부수어 앙갚음을 하고 싶었겠지만, 미리 비석을 땅에 몰래 묻어두고 다른 돌을 대신 부숴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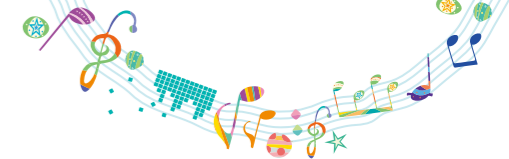
논개의 무덤은 장수에서 산하나 너머 거리인 함양에 자리하고 있는데, 당시 최경희와 논개의 시신을 수습하고 왜군의 눈을 피해 이곳까지 운구해온 이들 역시 각 지역에서 나라를 위해 생계를 미뤄두고 모였던 의병들이었다고 한다.

눈 덮인 장수에서 만난 논개의 흔적들은 하나같이 민초들의 손에 의해 지켜지고 기억된 것들이라 더욱 소중하다. 희미하게나마 겨우 붙잡은 그녀의 자취도 결국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진주 남강의 서슬 퍼런 물결 속이 아닌 장수의 작고 오붓한 마을에서도 논개를 만날 수 있으니 반갑고 또 고맙다.



권다현

- 현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홍보이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 저서 '내일로 기자로' '나 홀로 진짜 여행' '만원으로 떠나는 초저가 당일치기' 등 다수
- 2014 한국관광의 별 단행본 부문 대상(문화부장관상)
- 현재 동아일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칼럼 연재
- 현재 MKBS1 라디오 <라디오 중심 김승채입니다> '권다현의 테마여행' 진행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글 김은주 사진 이주현, 우창연



사진 속 남자들이 만들어가는 무대는 늘 새롭게 변신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장의 조명·음향·무대 설치는 물론 센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연지원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주현, 최용철, 채승훈, 최재성, 최용석, 김태완, 이현목, 최재익(왼쪽부터)

무대가 없이는 공연도 없다



누군가 무대(stage)에 들어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크든 작든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의 성격에 어울리게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세밀하게 설계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대 장치는 더 이상 공연의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다. 조명에서부터 음향, 무대연출의 모든 부분이 흡족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공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텅 빈 무대를 상상력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 하나의 무대를 위해 수많은 장치와 소품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출연자들의 동선과 무대 전환에 따른 각각의 조명이 설계되고, 공연 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음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딱 들어맞아야 한다.

모두 모여 하나의 무대가 되고,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예술작품이 되는 것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일일 것이다.

무대와 객석의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욱 분주해진다. 모든 출연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라질 때까지, 관객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관객의 박수는 무대 위 빛나는 사람들의 몫... 박수 소리를 따라 흐르는 흐뭇한 미소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상이다.



Art event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공연, 전시, 강좌 및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class



performance



exhibition

cultural art



01

제11회 예술아카데미 축제 '나도 예술가'

올해로 열한 번째 열리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축제인 '나도 예술가' 전시와 공연이 11월 19일 오후 2시와 3시 차례로 막을 올렸다. '나도 예술가'는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나누는 '생활예술'을 통해 참가자들과 대중의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한 무대였다. 오후 2시에 오프닝을 한 전시회에는 수묵화, 서예, 수채화, 공예 등 19개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풍물마당으로 막을 올린 공연은 드럼, 댄스, 통기타, 색소폰, 성악, 한국무용 등 17개 팀의 수강생 160여 명이 참가해 그 동안 꾸준히 연습해온 실력들을 발



표하였다. 행사 당일 전시와 공연 참가자들은 물론 남녀노소 관객들은 복잡함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글 | 류정선(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사진 | 이주현(문화정책실)

02

Z' ruck | 2016 대구-암베르크 국제미술교류전

2016 대구-암베르크 미술교류전인 'Z' ruck 전시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려 대구와 독일 미술계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미술교류전에는 암베르크 미술협회 한스 그라프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독일 작가와 박병구 회장(대구미협)을 비롯한 대구시 미술협회 소속 작가 30여 명 등 모두 50여 명이 참가해, 총 7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Z' ruck 전시회 출품된 작품들은 회화를 비롯한 평면 작품과 영상 미디어, 설치 작품 등으로 소재와 기법, 표현방법 면에서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로 기억되고 있다. 오프닝에서 한스 회장은 "이번 전시회의 제목인 'Z' ruck은 바이에른 주 오버팔츠의 방언으로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라며, "대구-암베르크 교류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 도시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져 또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암베르크는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독일에서도 예술문화



에 대한 지원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폭격을 받지 않아, 중세 건물과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 인만큼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자긍심도 높은 도시다.

글 · 사진 | 이정란(전시기획)

03

2016 '웃는얼굴 큰 잔치' | 웃음으로 전하는 희망 한마당

'웃음으로 전하는 희망 한마당' 주제, 2016 '웃는얼굴 큰 잔치'가 지난 10월 15, 16일 양일간 웃는얼굴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져 지역민들이 웃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청과 달서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한 '웃는얼굴 큰 잔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열린 미술체험마당, 신나는 발명체험마당, 이색 자전거타기, 희망드림 체험부스, 다문화 체험부스, 깨친맛 음식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희망나눔 콘서트, 다문화 어울림제, 비빔공연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나누는 큰 잔치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희망자전거제작소와 함께하는 '훈훈한 오빠 자전거'가 마련돼,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이색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다. 또 예술작품 만들기를 주제로 한 '열린 미술체험마당'과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돋우는 '신나는 발명한마당'은 참가자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함께 전했다.

오후 4시가 되자 참여한 주민들이 대부분 '웃음폭탄쇼'를 즐기러 야외공연장으로 모여들었다. 개그맨 송

영길과 정승환이 펼친 콩트와 개그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서로 웃음을 만들고 나눴다.

저녁 7시 메인공연에는 붐뮐의 대북 레이저쇼를 시작으로 인칸토 앙상블의 중창과 최댄스 컴퍼니 현대발레에 이어 마지막 무대는 시원한 댄스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김현정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15일 첫째 날 잔치를 마무리했다.

16일, 둘째 날 큰 잔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문화 어울림제'와 '깨친맛 음식한마당'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다문화 어울림제'는 달서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직접 그들 나라의 음식 맛을 보여줬으며, 다문화경연대회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깨친맛 음식한마당'은 달서지역의 다양한 음식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먹거리 잔치로 열렸다. 큰 잔치의 마지막 무대인 '비빔' 공연은 스시, 피자, 비빔밥 등 세계의 음식문화를 비트박스와 뮤지컬, 코미디와 비보잉으로 전달하며,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글 | 김은주 사진 | 이주현



2만년을 이어온 달서구

선사시대로 여행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선사인(先史人)들이 살기 시작한 달서지역은 청동기시대 유물은 물론, 대구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어 대구의 역사를 2만년으로 끌어올린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소중한 달서문화유산 탐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탐방운영기간 2017. 3월 ~ 11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신청접수** 2017. 2월부터 **신청대상** 누구나 (법정공휴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선사시대로」 탐방신청서(최소 5명 이상, 100명 이하) 작성 후 달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alseo.daegu.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달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FAX: 053)667-2179 / e-mail: dimplelord@korea.kr, 방문 신청

탐방일정 확정통보 달서 문화해설사 배치 후 개별통보 ※ 매월 둘째 목요일(A코스), 넷째 목요일(B코스) 오후 2시 상시 해설(1명 이상 신청시)

탐방코스

- A코스** 선사유적공원(진천동) ~ 고인돌소공원(진천동) 1시간 소요
- B코스** 한샘공원(대천동 청동기유적지) ~ 선돌공원(월암동) 1시간 30분 소요

달리는 돌돌버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 ~ 14시 A, B코스 연계 버스 운행 (5 ~ 20인 이하 청소년 대상, 4/18 이후 신청 가능)

※ 문의: 달서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053)667-2191~3

달서생활문화센터는 달서구민에게 열린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달서구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와 풀뿌리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생활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달서생활문화센터 이용방법

- ▶ 이용시간 : 평일(10~20시) 토요일(10시~15시) 일/공휴일 휴관
- ▶ 신청기간 : 매달 20일부터 27일까지 (1개월 단위 사전 접수)
- ▶ 신청자격 : 달서구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및 단체
- ▶ 사 용 료 : 무 료
- ▶ 제출서류 : (재)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scl.or.kr 참조
- ▶ 문 의 : 053-584-8969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